

2026 중남미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8
가. 정부 현황	08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09
3. 주요 이슈 Pick	11
가. (외교·통상)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 증대	11
나. (경제·산업) 중남미 전력난의 심화와 이에 따른 기회요인	13
다. (사회·문화) 일상 속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소비 행태 변화	15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0
가. 시장 특징	20
나. 무역	21
다. 산업	28
라. 투자	30
2. 유망 산업	34
가. K-소비재	34
나. 바이오의료(의약품·의료기기)	36
다. 인프라	39
라. 방산	40
마. 자동차·부품	41
3. 협력 기회	43
가. 통상·G2G	43
나. 프로젝트	45
다. 공급망(자원 개발)	48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52
2. 진출전략	54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67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84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91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94

I . 진출 환경

-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08 |
| 3. 주요 이슈 Pick | 11 |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요약) 글로벌 무역 환경 불확실성 속 다른 지역 대비 저성장 국면 지속

- 대외 불확실성과 민간 소비 둔화로 중남미 지역은 2.3% 내외 성장 전망
 - * 경제성장을 중남미/세계 : ('24년) 2.4%/3.3% → ('25년) 2.4%/3.2% → ('26년) 2.3%/3.1%(IMF(국제 통화기금), '25년 10월)
 - (대외 불확실성) 글로벌 무역환경 불확실성 속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중남미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감소와 금융비용 상승에 직면(ECLAC(유엔 라틴아메리카·カリブ 경제 위원회), '25년 8월)
 - (민간 소비 둔화) 민간 소비는 성장을 견인하지만 노동 소득 약화·높은 이자율·소비자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성장 속도 둔화 전망(ECLAC, '25년 8월)

□ 호조 요인

- (물가 안정) '24~'25년 인플레이션 둔화로 '26년 실질 금리 인하 가능성
 - * '24년 평균 인플레이션은 3%로, '25년과 '26년에도 비슷한 수준 유지 전망(ECLAC, '25년 8월)
- (상호 관세)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미국의 대중남미 상호관세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적극 활용하는 멕시코
 - * 미국은 멕시코·브라질·에콰도르를 제외한 중남미 주요국에 10%의 상호 관세를 부과
 - * USMCA 기준 충족 시 무관세 혜택을 볼 수 있어, 실효세율은 5.2%(Fitch Ratings '25.8월)
- (구리 수요) AI 투자 확대와 글로벌 전력난으로 구리 가격 상승
 - '24년 칠레 전체 수출의 50.8%, 페루 수출의 31.4%는 구리 수출에 해당하며, 파나마도 구리 광산 재가동으로 구리 수출 증가 전망
 - * 국제 구리 가격 : ('21년 10월) 3 달러/파운드 → ('25년 10월) 5달러/파운드(Trading Economics, '25년 10월)

□ 부진 요인

- (보호무역 기조) 미국발 관세 인상과 무역 규제 강화로 보호무역주의 심화
 - 멕시코 등 미국 수출 의존도가 큰 국가들은 무역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으로 중남미 등 신흥국 FDI(외국인직접투자) 감소 전망
- (정치 불확실성) 정책 방향 전환에 따른 기업·투자 환경 불안정성 심화 가능
 -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브라질·콜롬비아·칠레·페루·아르헨티나 등 주요국의 정치 일정과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 증대 가능
- (재정 여력 제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공공 부채와 이자 비용 증가
 -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에 의존하는 조세체계로 재정 안정성이 취약하고,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있어 GDP의 약 3%를 이자 비용으로 지출
 - * 주요국 기준금리('25.10월 현재) : (멕시코) 7.75%, (브라질) 15.0%, (콜롬비아) 9.25%, (아르헨티나) 29.0%
 - 재정 여력 제한으로 중남미 각국 정부는 PPP(민관협력)를 통한 인프라 투자 희망

□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625.49	631.50	635.9	639.7	644.3	648.9	653.5	658.1
명목 GDP	십억 달러	5,246	4,403	5,129	5,863	6,607	6,787	7,001	7,303
1인당 명목 GDP	달러	8,386	6,973	8,066	9,165	10,256	10,460	10,712	11,096
실질성장률	%	0.2	-6.9	7.4	4.3	2.4	2.4	2.4	2.3
실업률	%	8	10.2	9.2	6.9	6.2	6.2	6.2	6.1
소비자물가상승률	%	7.6	6.5	9.9	14.2	14.8	16.6	7.6	5
재정수지(GDP대비)	%	-3.7	-8.1	-3.9	-3.6	-5.1	-4.7	-5	-4.5
총 수출	십억 달러	1,050	943	1,199	1,411	1,396	1,461	-	-
(對韓 수출)	백만 달러	20,342	20,381	28,439	32,739	30,154	27,741	20,509	-
총 수입	십억 달러	1,062	902	1,240	1,499	1,401	1,443	-	-
(對韓 수입)	백만 달러	26,337	19,501	25,817	26,590	24,632	29,008	21,681	-
무역수지	백만 달러	-11,945	40,454	-41,501	-88,279	-5,953	18,583	-	-
경상수지	십억 달러	-108.6	-9.9	-92.3	-128.2	-78.0	-64.1	-77.9	-83.5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483	-5.7	415	701	498	333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607	934	1,431	1,962	1,867	1,643	-	-

주: 2025년 對韓 수출입('25년 9월 누적), *추정치

자료: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UNCTAD), 총 수출·총 수입·무역수지(ITC Trade Map), 실업률(ILO), 對韓 수입, 수출(KITA 11월 기준)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구조적 요인으로 제한된 성장 전망('26년 2.0~2.5% 성장 전망)

주요국 GDP 성장을 추이 및 전망('23~'25년)

국가	성장률(%)			국가	성장률(%)		
	2024년	2025년e	2026년p		2024년	2025년e	2026년p
브라질	3.4	2.4	1.9	도미니카공화국	5.0	3.0	4.5
멕시코	1.4	1.0	1.5	과테말라	3.7	3.8	3.6
아르헨티나	△1.3	4.5	4.0	파나마	2.7	4.0	4.0
콜롬비아	1.6	2.5	2.3	파라과이	4.2	4.4	3.7
칠레	2.6	2.5	2.0	중남미 전체	2.4	2.4	2.3
페루	3.3	2.9	2.7	신흥개도국	4.3	4.2	4.0
에콰도르	△2.0	3.2	2.0	전 세계	3.3	3.2	3.1

자료: IMF(국제통화기금), '25년 10월, 현지화 기준 실질 GDP 성장률

- (저성장 지속) 대외 수요 약화, 금융 긴축, 소비 부진, 투자 부진, 높은 비정규직 비율, 구조적 불평등 등의 요인에 의해서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 지속
* '11년 이후 팬데믹 회복기인 '21~'22년을 제외하면 중남미는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회(IMF)
- (국가별 차등) 아르헨티나·도미니카공화국·파나마는 4%대 성장이 전망되지만,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멕시코는 1%대 성장 전망(IMF, '25년 10월)

주요국 경제 현황

국가	경제 현황 1줄 요약
브라질	미국의 고율 관세(50%) 부과와 재정 리스크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
멕시코	USMCA가 수출 안정세를 뒷받침하지만, 동시에 '26년 USMCA 재협상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아르헨티나	정부의 균형 재정 달성을 노력과 공공투자 확대 전망되나 부채 상환 부담과 정치 리스크 상존
콜롬비아	'26년 신정부 출범으로 경제 성장세 유지 가능 전망이나 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상승폭 제한
칠레	'26년 신정부 출범으로 시장친화적 정책 강화 전망, 대외 불확실성은 제약 요인
페루	안정적인 물가로 민간 소비 성장 전망, 정치적 불확실성과 치안 악화는 민간 투자 제약 요인
에콰도르	국가 위험도 하락과 IMF 금융 지원으로 투자심리 회복, 전력난, 치안, 유가 하락은 리스크 요인
도(공)	FDI와 국내 생산 호조로 중남미 최대 성장 추세 유지 전망
과테말라	늘어난 대외 송금액을 기반으로 안정적 통화 기조 유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파나마	파나마 운하 물동량 정상화와 FDI 회복세, 구리광산 재개로 안정적 성장 전망
파라과이	농업 생산 회복과 투자 환경 개선을 기반으로 안정적 성장세 전망
쿠바	강화된 제재로 원자재 접근 제한과 관광업 침체를 겪고 있으며, 경제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 추진

- (소비) 현지화 약세와 취약계층 소비 여력 제한은 소비 확장세 제약
 - * 소비자 신뢰지수('25.9월) : (멕시코) 46.5, (칠레) 41.3 (파라과이) 49.9(Trading Economics)
- (민간 투자)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반등폭이 제한되나, 일부 국가 회복 전망
 - (멕시코) 건설 부문은 회복 추세이나 기계·장비 부문 부진
 - (콜롬비아) 재정준칙 회피는 국가 위험도를 상승시켜 외국인 투자 매력도 저하
 - (아르헨티나)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 확대세 지속 전망
- (산업생산) 보호무역 기조와 세계 수요 둔화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
 - (멕시코) USMCA 재검토 등 통상 불확실성 심화, 미국 경기둔화, 생산 효율성 제약으로 전반적으로 산업 생산 감소
 - * 제조업 산업생산지수 : -1.2('25년 1월) → 1.5('25년 2월) → -0.9('25년 3월) → 1.5('25년 4월) → 1.4('25년 5월) → 0.0('25년 6월)
 - (브라질) 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 압력,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주요 산업인 농업과 제조업의 성장이 제한될 전망
- (대외 교역)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 경기침체는 중남미 전체 교역에 부담
 - (멕시코) 대외 교역 규모는 증가 추세 유지, 석유 분야 만성적 적자 발생 중
 - (브라질) 원자재 수요 지속에 따른 견고한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 유지 전망
- (투자 유입) FDI 유입은 정체 흐름으로 '26년에도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
 - (멕시코)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 '25년 상반기 FDI는 342억 6,000억 달러로 사상 최고
 - (브라질) '20년 코로나19로 FDI가 저점을 기록한 이후 회복 추세에 있음

2. 정치(정책) 환경

가. 정부 현황

□ (정치 체계) 대통령 중심제가 대부분이며, 정권 성향에 따라 정책 방향 차이

- 정당 간 합의 형성이 쉽지 않고, 복지지출 중심 재정정책 경향(ECLAC, '25년 8월)
- 제도 신뢰 회복과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정치·경제적 안정성 강화 노력
 - (브라질) 공공청렴 강화프로그램, (멕시코) 디지털 행정·정부 개방, (콜롬비아) 행정 개혁과 참여 거버넌스

주요국 정치 환경

국가	대통령	성향	주요 정책 기조 및 공약	주요 리스크 요인	임기종료
멕시코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 중심, 국가 주도 성장 정책 '멕시코 계획' 통한 제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对미 관세정책 불확실성 미국 보호무역 강화 	'30년 09월
브라질	룰라 다 실바	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 확대·친노동정책 '국가 산업혁신 전략' 통한 산업 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 지출 확대 부담 의회 내 보수세력 견제 	'26년 12월
칠레	가브리엘 보리치	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개혁·환경정책·노동권 강화 45년 만에 연금 개혁 단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지율 하락, 개혁 피로감 민간 투자 둔화 	'26년 03월
콜롬비아	구스타보 페트로	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전환·조세개혁·공공 투자 환경 관련 진출 기업 의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반발·정책 집행 지연 对미 통상 마찰 심화 	'26년 08월
페루	호세 헤리	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안 강화 및 범죄 대응 예산 투명성 및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임 탄핵으로 대통령직 승계 시위·정권 불안 지속 	'26년 07월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축·민영화·규제 완화 추진 특별채권 통한 수입 외채 상환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갈등·노조 반발 환율·물가 불안 지속 	'27년 12월
에콰도르	다니엘 노보아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안 강화, 재정 건전성 강화 에너지 부문 투자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소수 정부 한계 마약범죄·치안 리스크 	'29년 05월
파라과이	산티아고 페냐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시장·투자 유치·인프라 확충 국제사회 입지 제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농업 의존도 행정 지연과 물류인프라 부족 	'28년 08월
파나마	호세 라울 물리노	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운하 기반 경제 다각화 친투자 정책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하 수위 저하 기후 위기 정치 피로감 	'29년 06월
도(공)	루이스 아비나데르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자 유치·관광·제조업 육성 중심 조세 개혁, 공공 부채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부채 증가 에너지 가격 불안정 	'28년 08월
과테말라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 척결·행정 개혁·사회복지 확충 투자기업 세제 혜택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내 지지 세력 부족 구체제 세력 결탁으로 반개혁 우려 	'28년 01월
쿠바	미겔 디아스카넬	사회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계획 경제 유지 제한적 민간 개혁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환 위기·미국 제재 지속 구조 개혁 지연 	'28년 04월

자료: KOTRA 국별 진출전략, EIU 등 자료 종합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경제·산업 정책) 전반적인 산업 다변화·녹색 전환·포용 성장 기조 속, 아르헨티나는 규제 완화·자유화 정책으로 대조

- 제조업·에너지·인프라 중심 산업정책 강화 및 국가별 전략 산업 육성 추진
* (브라질·멕시코) 내수 수출 균형형 산업정책/(칠레·페루) 광물 기반 신성장 산업 전환
- (아르헨티나) 특별채권(BOPREAL) 활용한 수입외채 상환 허용과 절차 축소·국제표준 인정으로 무역 환경 개선되어 기업의 결제 안정성과 국제 신뢰도가 제고
- (페루) 디지털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설정하고, 총리실 산하 디지털전환국(SGTD)을 통해 8대 분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 (투자 유치) FDI 유입 확대 위해 세제 감면·자유무역지대·특구 확대 운영

- (멕시코) '소노라 계획' 통해 북부 제조벨트 강화 및 리튬 밸류체인 구축
- (브라질) '국가 산업혁신 전략' 추진, 녹색산업·첨단제조 육성
- (칠레) 투자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 전면 개혁으로 평균 처리기간 단축 전망

□ (통상 및 무역)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이 공존

- MERCOSUR-EU FTA(남미공동시장-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CPTPP(한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참여 검토 확대
- 일부 국가는 농식품·자동차 등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강화
-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 위해 탄소인증제·녹색세제 검토

□ (노동·사회 정책) 친노동 정책 강화로 노무 비용 증가 및 기업 부담 확대 우려

- 최저임금 인상, 노동조합 영향력 강화, 근로시간 단축 논의 확대
- 사회보장·연금 개혁 추진 중이나 재정 부담 가중, 집행 지연 사례 다수

□ (기후·에너지 정책) 기후변화 대응 위해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투자 확대

- (공통) 녹색금융·ESG 투자 기준 정비 및 외국 기업 참여 확대
- (브라질·칠레) 태양광·풍력·그린수소 프로젝트 적극 추진
- (아르헨티나·볼리비아) 리튬 개발의 국가 통제 강화, 공공·민간 협력모델 도입

- (에콰도르) '24년 1월 발효된 에너지 경쟁력 법에 따라 10MW 이하의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는 공개 입찰 절차 없이 에너지부 승인만으로 건설 가능

□ (대외 정책) 실용주의 기반의 다변화 외교 추진

- 미국·EU와의 경제 협력 강화, 중국·한국 등 아시아와는 산업·기술 협력 확대
- 미국·중국 사이 전략적 균형 노선 유지, 지정학 중립적 외교 기조 선호

3. 주요 이슈 Pick

가. (외교·통상)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 증대

- 관세 관련 내용은 2025.11.10. 현재 기준

□ 미국의 對중남미 관세 정책

- (멕시코) USMCA 원산지 미준수 제품에 추가 관세(펜타닐 관세) 25% 부과
 - USMCA 무관세 혜택 적용을 위해 멕시코 생산품의 USMCA 활용률은 상승 중
 - * 對미 수출 USMCA 활용률 : ('25년 5월) 42% → ('25년 7월) 84.4% (CITIBANAMEX·멕시코 경제부)
 - (USMCA 재검토, '26년 7월) 원산지 규정 조정이 주요 쟁점으로 미국은 멕시코에 대해 중국산 우회 수출 차단, 원산지 규정 강화, 민감 산업(반도체·광물 등) 공급망 논의 등을 요구할 가능성 큼
- (브라질) '25년 8월 6일부로 브라질 수입품에 적용되던 10% 관세를 50%로 인상
 - (명분) 보우소나루 前대통령에 대한 정치탄압, 브라질의 높은 무역장벽 등
 - (경과) 일부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對미 수출품의 36%에 50% 관세 부과

미국 對브라질 관세 50% 부과·면제 주요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관세 50% 부과 품목		관세 50% 면제 품목	
	품목명	對미 수출액(2024년)	품목명	對미 수출액(2024년)
1	커피 원두	1,873	경질 원유	4,310
2	비합금 철강(반가공)	1,699	비합금 선철	1,536
3	합금강(반가공)	517	펄프	1,339
4	휠 로더	471	중질 원유	1,115
5	소고기(냉동)	466	항공기(중형)	1,069
6	설탕(비정제)	420	벙커유	1,008
7	소나무 목재 물딩	351	휘발유	787
8	소고기 가공품	347	항공기(대형)	752
9	동물성 지방(소·양·염소)	346	오렌지주스	631

- (영향) 미국 수출 중심의 멕시코와는 달리 브라질 GDP에서 對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로 적은 편이지만 커피·축산 기업 피해 전망
- (대응) 상호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수출 기업 피해 완화 정책 실시

- (칠레·페루) 주요 수출품인 정제 구리는 50%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미국 상무부는 향후 자국 구리 산업의 회복 상황을 반영해 '27년부터 정제 구리에 단계적 관세 적용(15% → 30%)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칠레·페루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안정적인 공급 관계 유지 의지 피력
- (공통) 일부 국가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10%의 상호 관세 부과

미국의 주요 對중남미 국가 관세 현황

(단위: %)

국가	합계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실효세율	비고
멕시코	25	협의 중	25	5.2	펜타닐 유입과 불법 이민에 대한 정치적 대응 단, USMCA 원산지 기준 준수 시 무관세 가능
아르헨티나	10	-	-	6.4	
콜롬비아	10	-	-	6.5	
파나마	10	-	-	7	
에콰도르	15	15	-	8.2	
칠레	10	-	-	9	
페루	10	-	-	9.7	
쿠바	10	-	-	9.9	
과테말라	10	-	-	10.6	
도미니카공화국	10	-	-	10.7	
파라과이	10	-	-	14.5	
브라질	50	10	40	26.9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 기소에 대한 정치적 대응

주: 실효세율: 해당국이 미국에 납부한 수입관세 총액/미국의 對해당국 수입 총액

자료: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백악관), 실효세율(Fitch Ratings, '25년 8월 15일)

□ 시사점

- (관련 분야·산업)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농산물 분야가 직접적인 영향
 - (제조업) 멕시코·중미 지역의 자동차·전자·섬유 산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
 - * 일부 기업은 관세 회피를 위해 공정 분산 또는 미국 내 재조립 검토 중
 - (철강·알루미늄) 트럼프 행정부는 '25년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를 도입하였으며, 브라질 멕시코산 철강은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 산업 피해
 - (농산물) 멕시코·과테말라 채소·과일, 브라질 육류·곡물 수출도 불확실성 확대
 - (물류·공급망) 통관 비용·수송비 상승으로 인한 물류·공급망 전략 재설계 필요
 - (FTA) 중남미 각국은 FTA를 통한 무역 확대 및 파트너 다변화 시도
 - * (메르코수르) EU와 FTA 체결을 통해 EU와 경제적 연대를 모색(현재 EU 각국 승인 절차 진행)
 - * (멕시코·콜롬비아·에콰도르·과테말라) 기존 FTA의 무관세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 증격 완화

- (우리 기업에의 영향) 중남미 수출 지형 변화로 인한 공급망 재편 검토 필요
 - (수출 환경 변화) 한국 기업의 멕시코 진출 법인이 생산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경우 관세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존재
 - *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 생산품이 “중국산 부품 함유율” 문제로 관세 대상에 포함될 소지
 - * 향후 USMCA 재협상 및 원산지 규정 강화 시 규정 충족을 위한 공급망 현지화가 필수
 - (대체 시장 발굴) 멕시코 외 중남미 내수 거점으로의 판로 개척 필요성 부상
 - * 한국-중남미 FTA 네트워크(칠레, 콜롬비아, 중미 5개국 등)를 활용해 무관세·원산지 혜택 극대화
 - * 중남미 정부의 FDI 인센티브(특구·세제 혜택)를 활용, 현지 거점 마련 및 관세 회피 전략 수립

나. (경제·산업) 중남미 전력난의 심화와 이에 따른 기회요인

□ 중남미에서 전력 수급 불안정이 구조화되는 양상

- (원인) 중남미는 수력 중심의 전력 구조로, '24년 이후 기후 이상, 송전 인프라 노후화, 수요 급증이 겹치면서 전력 공급 불안이 구조화
 - (수력 의존) 중남미의 수력발전 비중은 45%로 친환경적이지만 가뭄 시 즉각적인 공급 차질 → 비상 공급의 일상화로 탄소 소비가 증가하는 ‘그린 패러독스’ 발생
 - (송전·저장 인프라) 풍력(12%)·태양광(7%)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송전·저장 인프라 확충은 지연 → 시간대별 발전 편차 발생 및 공급 안정성 저하
 - (국가 간 불균형) 물리적 거리와 인프라 문제로 전력 생산 초과지역(파라과이, 우루과이 등)과 부족 지역(칠레 북부, 멕시코 북부) 간 전력 거래 불가능
- (경제·산업 영향) 정전·전압 강하로 인한 생산 차질과 전력 요금 상승 문제

주요국 전력 부족 사례

국가	전력 부족 사례
멕시코	북부 제조벨트 정전 및 전압 강하로 자동차·전자부품 공장 가동 차질
브라질	알루미늄·철강·펄프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가동률 -8%, 북동부 산업단지 제한 조치
칠레	'25년 2월, 칠레의 약 90% 이상의 인구가 정전 피해를 입고, 광산 등 산업 설비 영향
콜롬비아	수력 의존 구조와 가뭄으로 전력 공급 제한, 산업용 전기에 20% 높은 비용 책정
페루	리마·아레키파 산업단지 정전으로 시멘트·식품 생산 지연 등
파나마	건기 수력발전 감소 → 코스타리카로부터 전력 수입 증가
에콰도르	전력난으로 가공 산업 생산 차질, 항만 냉동시설 전력 부족
파라과이	이타이푸댐 저수율 저하 → '24년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전력 수출 20.2% 감소

자료: INEGI(멕시코 국립통계지리연구소), IPEA 및 KOTRA 무역관 자료 종합

□ 시사점

- (향후 전망) 중남미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본 원인의 해결을 위한 실행 방안을 수립 중
 - (핵심 과제) 전력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①수력 편중 구조 완화, ②송전·저장 인프라 확충, ③역내 협력 강화, ④민간 투자 활성화가 있음
 - (국가별 주요 정책) 브라질·칠레는 대규모 산업형 모델, 폐루·파나마·코스타리카는 PPP·분산형 모델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 강화 정책 수립

주요국 전력 정책

국가	정부 주요정책 발표	출처
브라질	수력·풍력·가스·수소 복합 전원 구축,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송전망 현대화, 북동부 재생에너지 단지와 산업벨트 연계	멕시코 전력청, '25년 4월
멕시코	북부 산업벨트 송전선 확충(400kV), 민간 태양광 발전 허용, 가정용 ESS 보급 시범사업	브라질 정부, '24년 1월
칠레	재생에너지+저장 복합 입찰 신설, 변동성 전원 관리 강화	칠레 에너지위원회, '25년 3월
콜롬비아	공정한 에너지 전환, 가스·ESS 보완 전원 확충 등	콜롬비아 에너지부, '25년 2월
폐루	민관협작 송전·변전 프로젝트, 재생·가스 하이브리드 구조	폐루 에너지부, '25년 6월
파라과이	파라과이 정부는 에너지 인프라에 향후 15년간 약 70억 달러 투자 예정	파라과이 에너지부, '24년
코스타리카	분산형 재생 에너지 ESS 도입, 스마트미터 보급	코스타리카 전력공사, '24년
에콰도르	979MW 전력 추가 확보, 발전기 수입 관세 면제, 고압 전력 사용 기업 대상 자가발전기 설치 의무화 등	에콰도르 대통령, '24년 6월 등

- (기회와 위험) 친환경 전력 안정화 솔루션 분야에서 파트너십 기회 존재
 - (기회 요인) K-그리드 신뢰성을 활용, 국가 전력 정책과 연계한 기회 선점
 - * (EPC·송전·ESS)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기술 수요(브라질·멕시코·폐루)
 - * (스마트 그리드) 디지털 전력망 구축 및 안정화 솔루션 필요성 증대
 - * (발전+저장 패키지) 칠레·콜롬비아의 혼합 입찰 제도와 부합
 - * (ODA·PPP 진출) IDB(미주개발은행)·CAF(중남미개발은행)·KOICA(한국국제협력단) 연계 가능성이 높은 전력망 현대화 사업
 - (위험 요인) 정책·재정·환경 요인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과 수익 불확실성
 - * (정책 불확실성) 정권 교체 시 전력시장 제도 변경·계약 이행 지연 위험
 - * (환율·재정 리스크) 통화가치 불안으로 프로젝트 수익성 저하 가능
 - * (인허가·환경 리스크) 환경평가·지역사회 승인 지연 사례(칠레·콜롬비아)
 - * (기후 리스크) 가뭄·홍수 등 물리적 리스크가 수력·송전 안정성에 영향

다. (사회·문화) 일상 속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소비 행태 변화

□ 모바일 인터넷 보급*에 따른 소비의 디지털화 진행 중

- (현황) 중남미는 가장 빠르게 온라인 소비가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로 부상
 - * 중남미 국가의 일일 인터넷 사용 시간은 세계 평균(6시간 43분)을 1시간 이상 초과(Digital '25년)
 - * '25년 기준 인터넷 보급률 약 79%, 스마트폰 보급률 75% 이상, '26년에는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3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ECLAC, Statista)
 - 가격비교·후기 기반 모바일 쇼핑을 선호하며, SNS·메신저를 통한 직접 구매(Social Commerce)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Parcelperform, '25년 2월)
 - 중남미 정부는 디지털 금융 포용(Digital Financial Inclusion) 정책 추진 중
 - * 브라질 Pix·멕시코 CoDi·페루 Yape 등 정부 주도 실시간 결제 시스템 도입 및 정착으로 금융 접근성 개선
- (관련 분야·산업) 이커머스, 핀테크,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 급성장
 - (e-Commerce) 패션·화장품·전자제품·식품 등 생활 소비재의 온라인 구매 급증
 - *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6년 약 2,800억 달러에 이를 전망, 주요 플랫폼으로는 Mercado Libre, Amazon, Shopee LATAM, Falabella 등이 있음(Statista)
 - (핀테크) 은행 계좌가 없는 인구(약 40%)가 전자지갑을 통해 금융시스템에 편입
 -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구독을 통한 영상 시청 및 커뮤니티 참여형 소비 활성화
 - *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구독자 급증, 멕시코·브라질이 글로벌 상위 10대 스트리밍 시장 포함
 - * 온라인 게임, e스포츠, 음악 스트리밍 등 콘텐츠 소비와 커뮤니티 참여형 소비 융합

□ 시사점

- (시장 구조 다종화) 중남미는 ‘디지털 소비 생태계’로의 전환
 - 단순히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는 단계를 넘어, 검색-후기-구매-결제-공유로 이어지는 ‘순환형 디지털 소비 생태계’로 진화 중
 - 유통망 중심의 판매보다, 디지털 채널(모바일, SNS, 메신저)을 통한 제품 노출과 소비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구매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 MZ 세대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모바일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연령대별로 상이한 콘텐츠·채널 전략 필요
- (결제 인프라 연동) 디지털 결제 연동을 통한 접근성 확대 필요
 - 정부 주도 결제 인프라 확대로 현금 의존도가 높았던 거래 방식을 구조적으로 개편
 - 진출 기업 입장에서는 결제 호환성 확보(PIX·Yape 등 연동 API 적용)와 데이터 보안·신용평가 협력 모델 구축 등이 경쟁 요소로 부각

- (물류 파트너십 필요)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들은 배송 신뢰도를 중요하게 평가
 - 중남미 대부분 지역은 도심 외곽의 배송 인프라가 취약하므로, 현지 3PL·라스트마일 스타트업과의 협업 필요
 - 멕시코는 물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역직구 시범 진출 거점으로 적합



현장톡톡 : 리마 상공회의소 디지털 전환 센터 인터뷰('25.10.17.)

Q. 최근 페루 전자상거래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 팬데믹 이후 페루 전자상거래 시장은 구조적 전환을 겪으며 급성장했습니다. 팬데믹 전 전체 소비의 1~1.5%에 불과하던 온라인 비중이 현재 10% 수준까지 확대되었고, 모바일뱅킹·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덕분에 수도·전기·통신비 결제부터 온라인 소비 습관이 빠르게 정착되었습니다. 이후 식료품, 의류,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산되며 시장이 본격 성장했습니다.

Q. 해외 플랫폼 확산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A. Temu, AliExpress, Amazon 등의 글로벌 플랫폼이 페루 전자상거래 경쟁 구도를 빠르게 재편했습니다. Temu의 무료배송·저가 전략이 소비자 관심을 끌며 Amazon도 일부 상품 무료배송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가격·배송·리뷰를 비교해 최적의 선택을 하는 등 구매 행태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Q. 온라인에서 어떤 제품이 인기가 있습니까?

A. 초기에 생필품·소형 가전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가전·디지털기기·패션·생활용품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의류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고 있으며, 체형별 사이즈 정보 활용이 정착되면서 한국식 패션과 트렌드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뿐 아니라 브랜드 신뢰, 후기, 사용자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Q. 정부의 지원이나 인프라 정책은 어떤가요?

A. 정부는 물류 인프라 확충과 통신망 개선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리마 국제공항 확장, 창카이·카야오 항만 개발, 전국 도로망 개선, 5G 주파수 도입 등으로 물류·네트워크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반품 버튼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정책은 영세 판매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균형 잡힌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Q. 디지털 결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A. 야뻬(Yape)와 플린(Plin)을 중심으로 디지털 지갑 사용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1,800만 명 이상이 모바일 결제를 이용합니다. 카드 없이도 스마트폰과 신분증(DNI)만으로 송금·결제가 가능해졌고, 길거리 상점이나 비공식 영업자들도 QR 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현금 의존도를 낮추며 금융 포용 확대와 전자상거래 성장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간 물류 인프라 격차입니다. 지방일수록 배송비와 시간이 늘어나 온라인 거래가 제한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재고 관리·고객 응대 등 디지털 운영 역량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기술 도입 여건이 미흡합니다. 정부의 인프라 확충과 함께 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가 시장 성장의 관건입니다.

Q. 향후 페루 전자상거래 시장 전망은?

A. 경제가 3%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면서 전자상거래도 연평균 10% 안팎의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습관이 고착화되고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오프라인은 체험형 공간으로, 온라인은 주요 거래 채널로 자리 잡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Q. 한국 기업에 조언하신다면?

A. 페루 소비자는 새로운 브랜드와 제품에 개방적이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구매가 활발합니다. 한국 기업은 현지 진출뿐 아니라 역직구 방식으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보다 품질, 신뢰, 브랜드 스토리 등 차별화된 가치로 접근할 때 장기적인 시장 포지셔닝이 가능합니다.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0
2. 유망 산업	34
3. 협력 기회	43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6억 5,000만 명의 인구 보유, 전 세계 GDP의 7.3%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
- 공급망 파트너에서 글로벌 생산 거점이자 미래 시장으로 부상 중
- 멕시코·중미는 미국 수출 중심, 브라질은 남미 자체 시장을 목표로 하는 제조업 발달
- 칠레·페루·브라질·아르헨티나는 광산업과 농식품 산업이 GDP의 많은 비중을 차지

가. 시장 특징

□ (특징) 약 6억 5,000만 명의 인구 보유, 전 세계 GDP의 7.3%(7조 달러) 차지

- 중남미 전체 수입 1조 3,000억 달러 중 한국으로부터 290억 달러 수입(약 2.3%)
- 우리나라 10개국과 FTA 체결('25년 중 발효 예정인 에콰도르·과테말라 포함)
* 한국-멕시코 FTA는 현재 협상 재개를 위한 기반 조성 중, 한국-메르코수르 FTA는 '21년 8월 7차 협상 이후 중단

분야별 중남미 시장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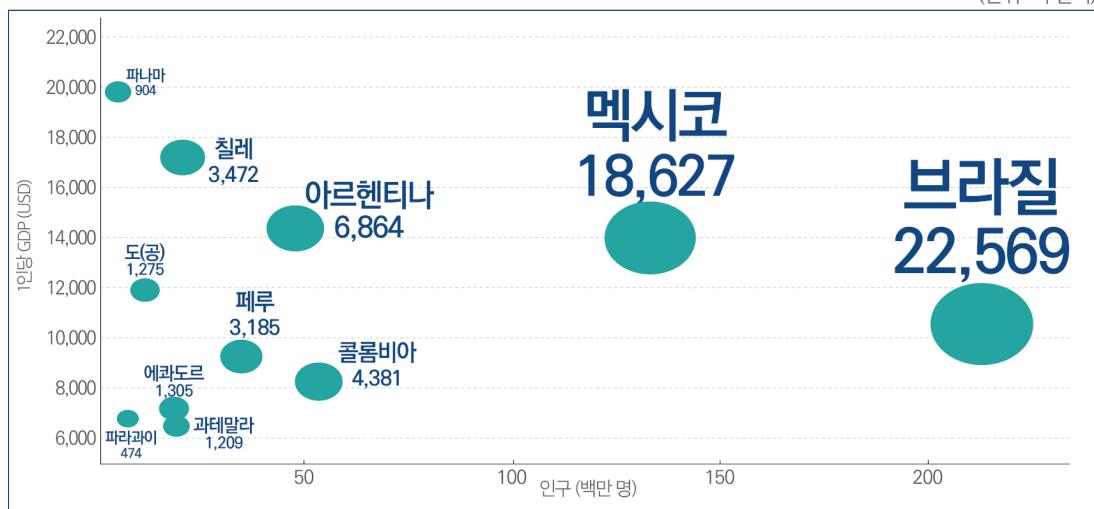
분야	특징	세부 내용
시장 구조	다극성·불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라질·멕시코 2대 경제권이 전체 GDP의 약 60% 차지• 칠레·콜롬비아·페루는 안정적 성장, 아르헨티나는 경기 변동성 큼
정책·제도	보호무역과 개방 공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르코수르는 산업 보호, 멕시코·칠레·콜롬비아는 자유무역 지향• 역내 경제공동체(메르코수르·태평양동맹)가 존재하지만 완전 통합은 미진
산업 구조	원자재 의존·제조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으로 광물·농산물 중심이나 최근 제조·서비스 확대• 멕시코는 미국 공급망 연계형 산업, 브라질·칠레는 내수·자원형 산업
소비 시장	젊은 인구·디지털 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의 절반 이상이 35세 이하, SNS·모바일 결제 이용률 급증• 가성비와 브랜드 신뢰도 중시, 한류(K-콘텐츠·K-소비재)에 대한 호감도
사업 환경	제도 불안정성·잠재력 병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율·물가·정치 불확실성이 높고, 인허가·통관 절차 복잡• 시장 개방·디지털화·소비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큼

□ (전략적 가치) 공급망 파트너에서 글로벌 생산 거점이자 미래 시장으로 부상

- (원자재 보고) 핵심적인 광물 생산기지이자 세계적인 식량 공급원
- (생산 거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생산 거점으로 부상 중
 - (멕시코) 팬데믹 이후 북미 생산 기지화 가속 → 우리나라 對중남미 수출의 50%
 - (브라질) 폐쇄적인 메르코수르 시장 공략을 위해 다양한 분야 제조 기업 진출
- (미래 시장) 소비재·바이오의료 시장 성장 및 인프라 프로젝트 기회 확대
 - (소비재) OTT, SNS 보편화로 한류 인기 증가 → K-소비재 시장 확대
 - (바이오의료) 인구 성장·노령화로 제약·의료기기 시장 매년 8%대의 성장
 - (인프라) 정부 주도 인프라 시장으로, 신뢰 있는 국가와 G2G(Government to Government) 계약 선호

〈참고 : 중남미 주요 국가별 GDP 규모〉

(단위: 억 달러)



주: '25년 명목 GDP 규모 예측치 해당

자료: IMF('25년 10월), KOTRA 중남미지역본부 정리

나. 무역

□ (수출입 동향) 전년 동기 대비 '25년 중남미 수출액 및 수입액 증가

- (수출 규모) '25년 7월 누적 수출액은 7,623억 달러로, 전년비 4.7% 증가
 - 자동차부품과 귀금속의 수출 증가가 전체 수출 증가세 견인
- (수입 규모) '25년 7월 누적 수입액은 7,483억 달러로, 전년비 7.3% 증가
 - 자본재 수입 증가 및 아르헨티나의 수입 규제 완화 조치 영향

중남미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1,234	5.7	1,283	4.0	762	4.7
수입	12,30	△ 3.1	1,249	1.5	748	7.3
무역수지	3	103.3	33	895	14	△ 54.2
총 교역	2,464	1.1	2,532	2.8	1,510	6.0

자료: Global Trade Atlas, '25년 10월

□ 중남미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중남미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중국·캐나다·브라질이며 총 수출액의 약 45%가 미국향으로, **對미 수출 의존도가 높음**
* 중남미 수출의 약 36%는 멕시코에서 수출되고 있으며, 멕시코 수출의 약 80%는 **對미 수출**에 해당
- (수출 품목) '25년 7월 누계 기준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기계류·전자기기·금속광물이며, 해당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40% 차지
* 멕시코에서 수출하는 완성차·자동차 부품·전자제품과 칠레·페루에서 주로 수출하는 구리광이 대부분

중남미 주요 수출 대상국 및 품목

(단위: 억 달러, %)

국가	수출 대상국				수출 품목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누계	증감률 (%)	품목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누계	증감률 (%)
미국	5,586	5,968	3,619	6.8	87 자동차	1,546	1,626	912	-0.9
중국	1,904	1,809	1,070	-3.4	84 기계류	1,030	1,137	845	34.8
캐나다	248	259	184	27.8	85 전자기기	1,098	1,155	675	4.3
브라질	299	331	157	-4.7	26 금속광물	1,023	1,091	608	1.9
네덜란드	250	256	147	6.2	27 광물성연료	1,098	1,107	589	-11.1
아르헨티나	244	202	145	36.1	12 채유용종자	615	406	356	-7.7
인도	166	212	128	21.3	90 광학의료	361	401	256	14.9
일본	217	217	122	3.0	71 귀금속	332	367	251	33.7
칠레	193	191	107	-1.9	08 견실견과류	328	367	234	10.5
스페인	164	185	105	-0.1	02 육류	343	366	218	16.7
소계	9,272	9,631	5,784	5.4	소계	7,774	8,137	4,944	6.4
총계	12,338	12,827	7,623	4.7	총계	12,338	12,827	7,623	4.7

자료: Global Trade Atlas, '25년 10월, HS 2단위 기준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국·중국·브라질·독일 등이며, 미국(29%), 중국(24%)이 중남미 총 수입액의 약 53%를 차지
- (수입 품목) 주요 품목으로 기계류·전자기기·자동차 및 부품·광물성 연료가 있으며, 전년 동기비 광물성 연료는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이외 상위 3개 품목은 상승

중남미 주요 수입 대상국 및 품목

(단위: 억 달러, %)

수출 대상국					수출 품목				
국가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누계	증감률 (%)	품목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누계	증감률 (%)
미국	3,834	3,678	2,167	1.8	84 기계류	1,695	1,873	1,234	18.3
중국	2,626	2,893	1,778	14.7	85 전자기기	1,890	1,996	1,180	6.5
브라질	547	471	270	15.5	87 자동차부품	1,114	1,188	707	7.3
독일	436	441	258	0.0	27 광물성연료	1,499	1,241	693	-3.5
대만	189	220	204	74.8	39 플라스틱	591	624	363	3.1
한국	291	330	191	3.6	30 의료용품	332	350	222	10.2
일본	319	310	187	6.6	90 광학의료	329	356	214	8.1
베트남	189	223	162	32.6	29 유기화학	310	305	186	10.7
아르헨티나	281	311	161	2.3	72 철강	310	291	175	2.0
인도	220	222	139	17.4	31 식물성비료	247	229	131	1.2
소계	8,984	9,111	5,518	9.4	소계	8,298	8,448	5,105	7.5
총계	12,304	12,493	7,483	7.3	총계	12,304	12,493	7,483	7.3

자료: Global Trade Atlas, '25년 10월, HS 2단위 기준

□ 對韓 교역 동향

- (교역) '24년 對중남미 교역액은 전년비 3.6% 증가한 567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25년 9월 누계 기준 對중남미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
 - (수출) '24년 對중남미 수출은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인 29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5년 9월 누계 중남미 수출은 2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
 - (수입) 한국의 對중남미 '24년 원자재 수입선 변경 등에 따라 '23년 대비 8% 감소하였으며, '25년 9월 누계 수입액은 2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감소

한국-중남미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258	32.4	266	3.0	246	△ 7.4	290	17.8	216	△ 1.2
수입	284	39.5	327	15.1	302	△ 7.9	277	△ 8.0	205	△ 1.4
총 교역	543	26.5	593	9.4	548	△ 7.7	567	3.6	422	△ 1.3
무역수지	△ 26	-	△ 61	-	△ 55	-	13	-	12	-

자료: 한국무역협회, '25년 10월

- 주요 교역 품목

- (수출) 주요 수출 품목은 선박류·자동차 부품·자동차 등으로, 3대 품목의 수출액이 약 30% 차지, '25년 미국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액 감소
 - * '25년 9월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중 선박류, 자동차, 석유제품 등 완제품 수출은 증가한 반면 자동차 부품, 철강판, 반도체,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 중간재 수출액은 감소

한국의 對중남미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	총 수출	29,008	17.8	-	총 수출	21,681	-1.2
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3,157	190.9	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3,090	37.4
2	자동차부품	3,115	12.6	2	자동차	2,216	10.2
3	자동차	2,794	2.8	3	자동차부품	2,186	-5.9
4	철강판	2,570	-4.2	4	철강판	1,953	-1.3
5	반도체	1,758	43.6	5	반도체	1,119	-18.6
6	합성수지	1,450	4.2	6	합성수지	1,043	-6.7
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179	44.8	7	석유제품	875	13.4
8	원동기 및 펌프	902	8.2	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665	-28.4
9	석유제품	845	-10.4	9	원동기 및 펌프	626	-12.4
10	농약 및 의약품	760	14.4	10	농약 및 의약품	530	-7.9

자료: 한국무역협회, '25년 10월

- (수입) '25년 9월 누계 기준,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기타금속광물·동광으로, 해당 3대 품목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35% 차지

* 기타금속광물은 멕시코·페루·볼리비아로부터 납광 수입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비 74.1% 증가

한국의 對중남미 10대 수입 품목 동향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	총 수입	27,741	-8.0	-	총 수입	20,509	-1.4
1	원유	4,211	2.6	1	원유	3,100	-4.5
2	식물성물질	2,613	-15.5	2	기타 금속광물	2,251	74.1
3	동광	2,149	-1.2	3	동광	1,740	0.9
4	동제품	2,057	-5	4	동제품	1,234	-23.6
5	기타 금속광물	1,848	4.6	5	식물성물질	982	-43.8
6	철광	1,467	14.8	6	기호식품	981	27.4
7	석탄	1,185	48.6	7	천연가스	949	102.4
8	기호식품	1,059	14.3	8	철광	876	-26.9
9	아연광	931	-17.5	9	아연광	758	6.4
10	정밀화학원료	758	-77.4	10	원동기 및 펌프	534	-4.9

자료: 한국무역협회, '25년 10월

□ 중남미지역 주요 수출 성공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중남미 진출 전략 ① : 합성골 의료기기 국내 기업 N사, 멕시코 위생등록 후 5년 만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합성재료 기반 골이식재로 인간·동물 유래 이식재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에서 자유로움
 - 타 합성골 대비 다공성이 높아 혈관·세포 침투력이 우수, 재생 촉진 구조를 통해 골 형성 속도 개선
- 필수 인증 : 멕시코 보건위험위원회(COFEPRI) 의료기기 수입인증 중 최고 등급인 3등급 인증 취득 필요
- 성약 소요기간 : 약 5년
- 바이어 발굴경로
 - 코로나 기간 중 해외 기업 접촉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합성골 의료기기 기업이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의 해외 시장조사·바이어 발굴 지원 서비스를 활용 → 유망 바이어 3개사와 연결, 그중 의료용품 납품 기업이 N사에 관심 표명.
 - 무역관은 화상상담 주선 및 관련 필요 서류 구비를 지원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고위험 의료기기(1등급 포함) 인증 등록은 절차가 까다롭고 장기간 소요되나, 인증 취득 시 단일 발주 규모가 크므로 신중하되 도전적 접근 필요
 - 한국이 동등성협정 인정 국가로 편입됨에 따라 멕시코 내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
 - 멕시코는 미국 등 글로벌 의료기업 생산기지가 다수 존재하며, 타 국가 대비 구매력이 높아 진출 유망성 검토 가능



성공 사례로 보는 중남미 진출 전략 ② : 건설중장비 기업 A사, 칠레 B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A사의 건설중장비는 디젤·전기 모델 모두 국제 인증(ISO 3691-1/2, ISO 22915 등)을 보유한 고품질 제품으로, 사용 환경에 맞춘 맞춤형 사양 대응력과 직접 공급 체계(중간 유통 없이 기술 지원 및 부품 공급 가능)가 강점
 - 바이어 측은 특히 A사의 유연한 커스터마이징 대응력과 기술자 한국 연수 프로그램, 사후 대응 역량에 만족
- 필수 인증
 - 디젤 엔진 관련 인증
 - 국제 안전규격(ISO 3691-1/2, ISO 22915, ISO 5057, ISO 2374, ISO 4301-1, ISO 9927, ISO 4309, ISO 4413 등)
- 성약 소요기간 : 약 9개월('25년 1월 15일 첫 접촉, '25년 10월 1일 계약 이미 지난 시점)
- 바이어 발굴경로 : KOTRA 산티아고무역관의 지사화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연결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시범 구매(1대 납품)를 통해 향후 연간 10대 이상 정기 납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로, 중남미 건설·중장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단발성 거래를 넘어 장기적 공급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줌
 - 현지 유력 바이어는 단순 제품 스펙뿐만 아니라 맞춤형 기술 대응력과 사후관리 체계를 중시하며, 기술 인력 훈련 및 직접 서비스 체계를 강조하는 전략이 효과적



성공 사례로 보는 중남미 진출 전략 ③ : 복강경 로봇 수술기 기업 미래컴퍼니(주), 파라과이 D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국내 최초 복강경 수술로봇 상용화에 성공. '사람을 살리는 로봇'이라는 개발 취지를 바탕으로, 고난도 수술의 정밀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 선진 의료기술의 집약체로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도 혁신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 필수 인증 : 의료위생감시청(DINAVISA) 등록 필수
- 성약 소요기간 : 2024년 12월 첫 수출 성사. 2025년 부분품 추가 주문 진행. 실제 성공적인 수술 시술이 이루어짐에 따라 추가 성약 및 도입 확대가 예상됨
- 바이어 발굴경로 : 무역관 실무 직원의 핵심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바이어의 실제 니즈 발굴, 이를 통해 현지 주요 병원 및 공공보건 관계자와 연계해 추가 수요 확인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첨단 의료기기의 도입은 단순 장비 판매를 넘어, 의료 시스템 현대화 및 인적 역량 강화와 직결됨
 - 초기 도입 후 성공적인 시술 사례가 축적되면, 파라과이 인접국(볼리비아, 우루과이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폐루, 칠레 등 인근국으로의 시장 확대 도모 중
 - 로봇 수술기의 경우 지속적인 부품 공급·기술 지원·의료진 트레이닝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이 핵심
 - 본 사례는 단순 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파라과이 간 보건의료 협력 모델로 발전 예상



성공 사례로 보는 중남미 진출 전략 ④ : (주)한솔제지, 콜롬비아 Prodispapel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콜롬비아 내 전자상거래 및 내수·국제 교역 확대로 인해 포장지, 라벨지 및 특수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이에 따라 기업들은 물류 효율화와 제고와 고객 요구 충족을 위해 고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춘 포장 솔루션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 필수 인증 : ISO(국제표준화기구) 기반 품질 인증
- 성약 소요기간 : 기업 측 비공개
- 바이어 발굴경로 : 콜롬비아 바이어(Prodispapel 등)는 (주)한솔제지가 사가 다국적 기업 Thomas Greg & Sons에 공급하는 업체임을 알게 되었으며, 동 기업의 공급업체 선정 기준이 품질 중심이라는 점이 신뢰 확보에 기여, 거래 성사 요인으로 작용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해당 기업은 콜롬비아 기업과의 조달 계약 체결 이후 마케팅 및 물류를 직접 관리 중임. KOTRA 보고타 무역관은 현지 비즈니스 지원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시장 확대를 위한 서비스도 지원 가능



성공 사례로 보는 중남미 진출 전략 ⑤ : 한국 K기업 아르헨티나 T사에 화장품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기능성 및 혁신적인 제품 공급
 - 현지 시장 특성에 맞게 색도 및 패키지 크기 조절하여 ODM으로 진행 예정
- 필수 인증 : 아르헨티나 식약처(ANMAT) 화장품 사전 등록(RNPA) 필요
- 성약 소요기간 : 6개월 이상
 - 2025년 2월 : 한국 업체 지사화 신청
 - 2025년 3월 : 한국 공급 업체 아르헨티나 출장 및 현지 바이어와 면담
 - 2025년 3월 : 바이어 한국 생산공장 방문 및 계약 진행
 - 2025년 9월 : 현재 제품 개발 및 샘플 테스트 진행 중
 - 2025년 12월 : 정식 수출 예정(20개 SKU(재고 관리 단위) 계약)
- 바이어 발굴경로 : 기존 무역관 DB에 등록된 바이어로, 한국의 경쟁력 있는 ODM 화장품 수출 업체를 찾고 있었음. 무역관에서는 2월 신규 지사화 업체인 한국 화장품 업체를 적극 소개. 한국 업체의 아르헨티나 출장과 바이어의 한국 공장 방문이 빠르게 이어져 계약 진행 속도가 빨랐음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해당 바이어는 중남미 10개국에 진출한 기업으로, 한국 업체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중남미 전역으로 동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경쟁국 동향

- 중국은 중남미의 전체 수입 대상국 중 아시아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2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일본·베트남이 2%대의 비중을 나타냄

중남미 수입 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국가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누계
중국	22.3	21.2	23.0	23.6
일본	2.3	2.6	2.5	2.5
한국	2.5	2.4	2.6	2.5
베트남	1.4	1.5	1.8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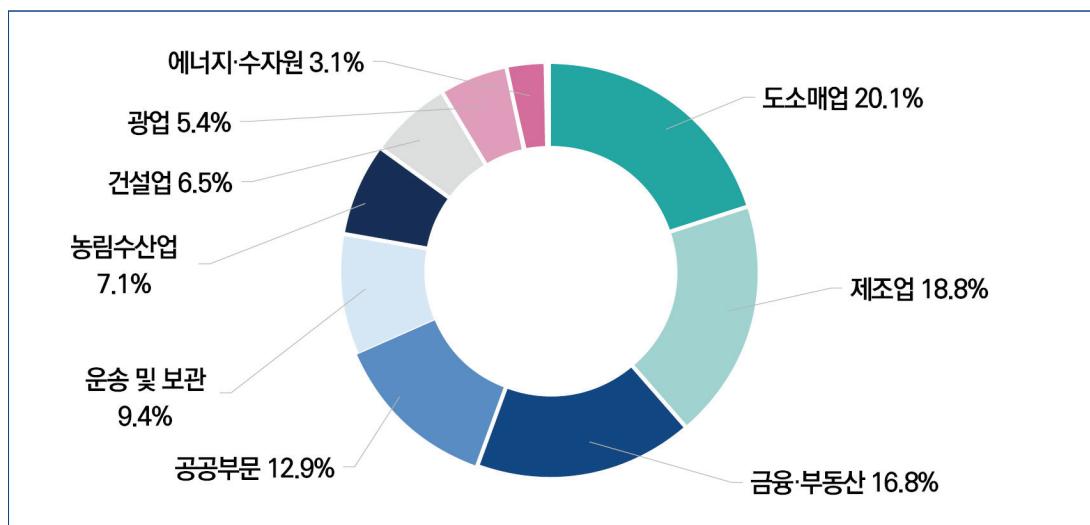
자료: Global Trade Atlas, '25년 10월

다. 산업

□ 주요 산업 개요

- 중남미 산업별 생산은 도소매업·제조업·금융업·부동산업이 산업별 부가가치의 55.6%를 차지하며, 광업과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임
 * (농림수산업) 중남미 7.1%, 세계 평균 4.0%, (광업) 중남미 5.4%, 세계 평균 1.2%(WB(세계은행), '25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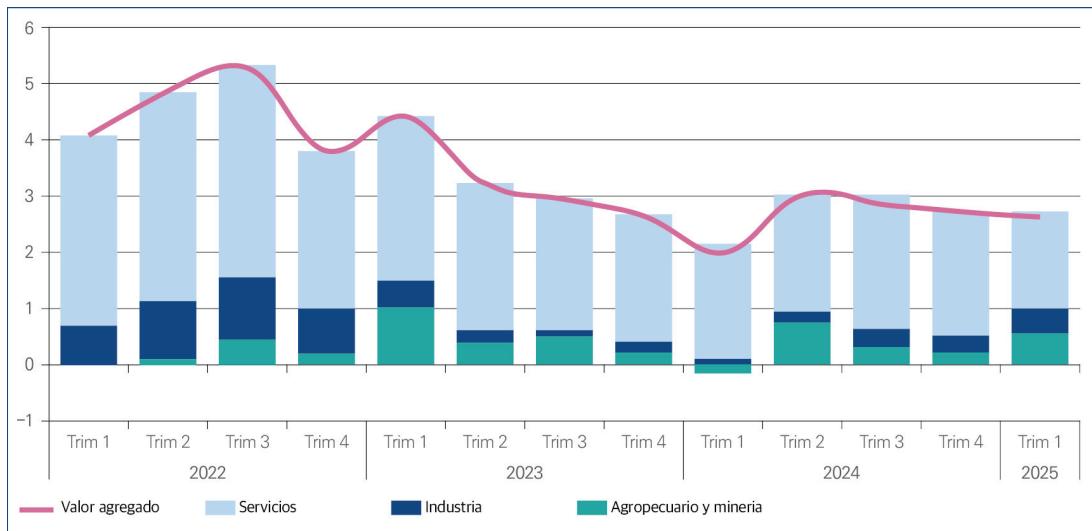
〈2024년 중남미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자료: ECLAC(유엔 라틴아메리카·カリ브 경제 위원회), '25년 10월

- '24년 2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25년 1분기에는 1·2차 산업의 성장률이 반등하였다고 분석(ECLAC, '25년 10월)

〈2024년 중남미 산업별 부가가치 성장률〉



자료: ECLAC, '25년 8월

□ 현지 주요 산업 최근 동향

- (자동차)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는 중남미의 자동차 생산 거점에 해당
 - (멕시코) '24년 420만 대 생산하여(세계 5위),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으나 관세·규제 등 불확실성으로 '25년 생산량은 약 10.3% 감소 전망(KAMA(한국자동차산업협회), Marklines)
 - (브라질) '22년부터 생산량을 회복하며 '24년 기준 256만 대(세계 8위)를 생산하였으며, 그린모빌리티(MOVER) 정책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저탄소 모빌리티 전환 추진
 - (아르헨티나) '24년 61만 대를 생산하여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가 인증 간소화를 추진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조달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 (광업) 광업의 GDP 비중이 타 지역 대비 높으며, 지속가능성 강화 추세
 - (칠레) 구리·리튬 등 전략 광물은 핵심 수출 품목으로, 기업들은 탈탄소화 추세에 맞춰 친환경 채굴·수자원 관리 기술을 도입하며 지속가능성 강화
 - (페루) 광업은 페루 전체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대표 산업으로, 구리, 금, 아연 등 전략 광물 중심의 프로젝트 추진 중

라. 투자

□ 중남미 투자 현황

- '24년 對중남미 FDI는 총 1,6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
 - FDI 최대 유입국은 브라질로 전체 투자액의 36%에 해당되며, 멕시코·콜롬비아·아르헨티나가 각각 22.4%, 8.7%, 7.0%에 해당

중남미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억 달러, %)

순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	중남미 전체	1,431	53.3	1,962	37.1	1,867	△ 4.8	1,643	△ 12.0
1	브라질	507	78.8	734	44.8	640	△ 12.7	592	△ 7.6
2	멕시코	335	18.8	363	8.3	365	0.4	369	1.1
3	콜롬비아	96	28.2	172	79.7	168	△ 2.3	142	△ 15.2
4	아르헨티나	67	36.3	152	128.3	239	57.0	114	△ 52.1
5	칠레	126	11.8	175	38.7	178	1.4	114	△ 36.0
6	가이아나	45	115.4	44	△ 1.7	72	64.9	86	19.1
7	페루	63	△ 922.0	118	87.4	36	△ 69.9	59	65.3
8	도미니카 공화국	32	24.9	41	28.2	44	7.1	45	3.0
9	코스타리카	32	83.3	32	△2.1	38	19.7	43	14.1
10	파나마	21	52.0	23	8.6	22	△5.0	28	28.9

자료: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25년 10월

- FDI 주요 투자국은 미국과 유럽으로 '24년 기준 미국은 중남미 FDI 전체 투자 규모의 38%를 차지하는 반면, 유럽연합은 15%를 차지(ECLAC, '25년 6월)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투자에서 제조업 분야는 43.6%, 서비스업은 40.4%, 천연자원 부문은 약 16% 기록(ECLAC, '25년 6월)

□ 한국의 중남미 투자 진출

- (규모) 한국의 對중남미 투자액은 최근 3년간 감소 중이며, '25년 상반기 투자금액은 약 42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2% 감소

*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멕시코로의 투자액이 전년 동기비 87.4%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임

한국의 對중남미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투자 금액	11,534	△ 11.4	9,786	△ 15.2	9,551	△ 2.4	4,283	△ 55.2
법인 설립	161	△ 3.6	147	△ 8.7	136	△ 7.5	90	△ 33.8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 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5년 10월

- (국가별) 케이만군도 투자는 대부분 조세 감면 목적의 법인 설립으로 추정되며, 멕시코와 브라질의 경우 제조업 진출 활발

한국의 對중남미 국가별 FDI 현황

(단위: 개사, 백만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신규 법인	투자액	신규 법인	투자액	신규 법인	투자액	신규 법인	투자액
케이만군도	79	9,475	61	6,425	57	6,711	28	3,599
멕시코	20	686	36	754	24	1,452	14	433
페루	4	692	2	509	3	445	5	90
영국령 버진군도	2	65	3	122	3	161	0	57
파나마	34	101	26	366	16	185	8	49
과테말라	3	10	5	19	9	84	2	21
칠레	6	68	3	18	3	4	7	9
버뮤다	1	18	0	31	0	18	0	9
브라질	5	107	1	1,178	10	176	9	5
기타	7	312	10	364	11	315	17	10
합계	161	11,534	147	9,786	136	9,551	90	4,28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5년 10월

- (업종별) 금융·보험업이 '24년 신규 법인의 41%를 차지하며, 제조업은 25% 차지

한국의 對중남미 업종별 FDI 현황

(단위: 개사, 백만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신규	법인	신규	법인	신규	법인	신규	법인
금융 및 보험업	71	8,013	59	5,565	56	6,386	30	3,332
제조업	25	818	37	1,899	34	954	15	360
시설관리 및 임대업	5	544	1	509	0	174	0	256
기타	60	2,159	50	1,813	46	2,037	45	335
합계	161	11,534	147	9,786	136	9,551	90	4,28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5년 10월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①: HE사 멕시코 법인, 멕시코 자동차 부품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25년 하반기)

- (기업) HE사(자동차 부품) 멕시코 법인 : 자동차 내장 원자재 레진을 제조하여 자동차 부품사에 납품
- (성공 사례) 기존 한국 동종업계 G사의 멕시코 공장을 인수하여 막대한 초기 투입시간 및 투입비용 절감
 - 장기간 매수자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으나 이상적인 매수 후보인 HE사가 나타났고 '25년 양사 간 협상으로 계약 성공
- (시사점) 정확한 기업 M&A 매치메이킹으로 G사(현금 확보)·HE사(시간 절약) 모두 원-원 거래 달성

주요 투자 진출 사례 ②: 치과기자재 기업 오스템임플란트, 브라질 주요 경쟁기업 M&A를 통한 시장 공략

- (기업) 오스템임플란트는 한국 치과 임플란트 업체로, 2024년 Implacil de Bortoli(브라질 내 치과 임플란트 업체, 시장 점유율 3위)를 약 8,980만 달러에 인수
- (성공 사례) 인수를 통해 브라질 내 유통망 및 고객 기반 확보함. Implacil은 제품군이 1,300개 품목 이상, 배포 센터 5개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약 1만 3,000명의 고객 확보
- (시사점) M&A를 통해 유통 네트워크, 브랜드 인지도, 인증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

주요 투자 진출 사례 ③: 광업자원 개발 기업 LS MnM, 칠레 국영 구리공사(Codelco)와 합작법인 설립

- (기업) LS MnM은 2014년 칠레 국영 구리공사와 합작법인(PRM)을 설립해 '17년 칠레 북부 메히요네스 지역에 귀금속(금, 은) 추출 공장 건설해 운영
- (성공 사례) PRM은 칠레 구리공사가 제공하는 Anode Slime에서 금, 은 등의 귀금속을 회수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LS MnM의 귀금속 공장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장세 기록 중
- (시사점) 구리, 리튬 등 주요 광물 개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광물자원 개발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분야의 틈새시장으로도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공통) 복잡한 행정과 경직된 노동시장, 정책 불확실성은 대부분의 국가에 해당
 - (행정) 인허가 및 세무·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지역별, 부처 간 행정 편차 큼
 - (노무) 강력한 노동법의 영향으로 고용 유연성이 낮으며 최저임금 인상 추세
- (개별) 국가별로 현지 투자 진출과 관련한 진입장벽 존재

주요 국가별 투자 진출 관련 진입장벽

국가	내용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해고 보상 의무 • 석유·전력·운송 등 국영·전략 산업에 외국인 투자 제한 존재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노동법과 높은 사회보장비로 총 인건비 급증 • 농지 소유·원자력·방산·미디어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 또는 금지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시간 단축(주 40시간) 및 사회보장 분담 확대 등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 방송·항공·해운·자원 개발 등 외국인 지분 제한 및 정부 승인 필요
콜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고 절차 및 근로자 보호 규정 강화로 인사·노무 관리 부담 • 방송·통신 분야 외국인 지분 40% 제한, 금융·보험업 투자 제한 가능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권 교체와 정책 변동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투자 안정성 저하 • 광산·에너지 분야 인허가·환경심사·지역사회 협의 등 절차 복잡
아르헨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노조와 엄격한 노동법으로 고용 유연성이 낮고 인건비 부담이 높음 • 누적·중복 과세 구조로 실질 세율이 높고 조세체계 왜곡 심화

2. 유망 산업

가. K-소비재

① 화장품

□ 화장품 산업 개요

- (규모) '25년 중남미 코스메틱 시장 규모는 약 675억 달러이며, '30년까지 연평균 4.3%의 성장을 통해 83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Statista)
- (수입) 최근 3년간 수입액 증가 추세로 스킨케어 제품이 73.8%로 높은 비중 차지

중남미 화장품(HS 3304)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HS CODE	2022년	2023년	2024년	비중
1	스킨케어	330499	1,524	1,919	2,093	73.8
2	립 메이크업	330410	142	215	289	10.2
3	아이 메이크업	330420	247	258	248	8.7
4	파우더류	330491	92	108	119	4.2
5	매니큐어류	330430	117	104	87	3.1

자료: Global Trade Atlas, '25년 10월

- (K-뷰티) 한국 화장품은 한류의 인기와 인지도 증가에 힘입어 급격한 수입 증가 추세
 * 한국 화장품 수입액(HS3304, 백만 달러) : ('23년) 51.7 → ('24년) 88.4 → ('25년 9월 누계) 119.7(KITA, '25년 10월)
- (기업 동향) 브라질 기업이 최대 점유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브랜드 성장
 - (브라질 로컬) Natura, Boticário, Jequiti 등 로컬 브랜드가 매출 상위권으로 브라질 내수 중심 성장
 - (글로벌 브랜드) L'Oréal, Unilever, Beiersdorf 등 현지 생산 확대 및 SNS 마케팅을 통한 현지화 전략 추진
 - (양극화) 고가(프리미엄·ESG)와 중저가(대중 브랜드) 시장 동시 성장
 - (직접 판매) 중남미는 직접 판매 네트워크가 단일 유통 채널 중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Euromonitor, '25년 10월)
 - (K-뷰티) 다양한 형태로 온라인(전문몰·대형 플랫폼), 오프라인(단독·멀티숍) 판매 중

□ 기회요인

- (FTA 확대) 에콰도르·과테말라 등 FTA 체결로 인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 중남미 10개국과 FTA 체결로 경제 영토 확장, K-소비재 경쟁력 제고
- (웰빙 트렌드) 팬데믹 이후 '프리미엄·건강·친환경'으로 대표되는 웰빙 소비 경향 확대로 화장품은 비건, 무자극, 자외선 차단, 리필형 수요 증가
- (한류 선호) 선호하는 아티스트나 배우의 스타일을 모방하려는 팬들의 '경험 중심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K-소비재 수입 급증
- (오프라인 확대) 기존 온라인 위주로 판매되던 한국 화장품이 최근 Sanborns, Sally Beauty 등 현지 오프라인 채널 입점 문의까지 이어지며 인기 확대

② 식품

□ 식품 산업 개요

- (규모) '25년 중남미 식품 시장 규모는 약 8,096억 달러이며, '30년까지 연평균 6.4%의 성장을 통해 1조 1,03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Statista)
- (수입) 중남미의 식품 수입액은 '23년 성장 이후 '24년 소폭 감소하였으며, 곡물(14.1%)과 육류(11.7%) 비중이 전체 1/4 이상 차지

중남미 식품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HS CODE	2022년	2023년	2024년	비중
-	전체	01-24	100,924	110,633	107,669	-
1	곡물	10	16,108	19,611	15,224	14.1
2	육류	02	10,400	10,852	12,547	11.7
3	가축 사료	23	9,919	10,341	9,038	8.4
3	종자, 과실 등	12	7,281	10,396	8,080	7.5
5	조제식료품	21	6,465	7,209	7,832	7.3

자료: Global Trade Atlas, '25년 10월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기업 동향) 브라질·멕시코의 2강 체제 아래, 칠레·페루·콜롬비아 등 성장
 - (브라질) 세계 1·2위 육류기업(JBS, BRF) 보유, 농식품 수출 중심
 - (멕시코) 북미 공급망 허브, 제빵·가공식품·소스류 강세로 주요 기업은 Grupo Bimbo, Coca-Cola, Sigma Alimentos, Gruma, Grupo Lala 등이 있으며, K-콘텐츠 인기를 기반으로 프로모션 캠페인에 적극 활용 중

※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와 멕시코 유통·식품 기업 협업 사례



Carl's Jr(패스트푸드)



DOS EQUIS(맥주)

- (칠레) 전체 수출의 24%를 식품이 차지하는 등 가공·수출 위주로 성숙 단계 진입
- (페루) 소매 · 외식 채널이 빠르게 성장 중이며, 과일·신선식품 중심으로 수출 증가
- (콜롬비아·아르헨티나) 내수 기반 다각화, 제과·커피·가공식품 중심

□ 기타

- (FTA) 에콰도르·과테말라 등 FTA 체결로 인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 중남미 10개국과 FTA 체결로 경제 영토 확장, K-소비재 경쟁력 제고
- (웰빙) 대체 단백질, 저당, 글루텐프리, 건강식품이 고성장 품목으로 부상 중

나. 바이오의료(의약품·의료기기)

① 의약품

□ 의약품 산업 개요

- (규모) '25년 중남미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770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3.2%의 성장 전망(BMI, '25년 10월)
* 만성질환 증가·고령화로 수요는 견조하나, 가격 통제·제네릭 우대·IP 이슈가 성장률의 상단을 제한
- (수입) 수입 규모는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로 '24년 기준 전년 대비 4.9% 증가, 품목별로는 일반 의약품의 비중이 전체 수입 품목의 약 80% 차지

중남미 의약품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HS CODE	2022년	2023년	2024년	비중	증감률 (2023~2024년)
1	일반 의약품	300490	12,662	15,329	16,115	80.1	5.1
2	호르몬제	300439	1,704	2,159	2,403	11.9	11.3
3	항생제	300420	897	952	891	4.4	-6.4
5	스테로이드	300432	311	360	363	1.8	0.6
4	비타민제	300450	398	376	351	1.7	-6.7

자료: Global Trade Atlas, '25년 10월

□ 최근 동향

- (브라질) '25년 의약품 가격 상한을 '24년의 105%로 조정하여 매출엔 우호적이나, 저소득층 접근성이 도전 과제로 현지 생산 강화 등 공급 역량 확대 정책 기조
- (멕시코) COFEPRIS(식약처 해당)-IMPI(특허청 해당) 협업 및 조달 체계 개편으로 제네릭·바이오 시밀러 접근성 개선과 공급 안정화 노력, 북미 분업·USMCA 기반으로 생산·수출 거점 매력 지속
- (아르헨티나) 패스트트랙 재검토·고가약 심사 강화 등 비용효율성 우선의 규제 변화로 혁신약 접근성은 단기 위축, 국산·제네릭 우대 기류 강화

□ 기타

- (향후 전망) 각국의 보건 정책 강화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나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 지출 확대가 계획에 따라 진행될지는 모니터링 필요
- (기회요인) 중남미에서 K-메디컬 신뢰도가 제도적으로 확대
 - (파라과이·파나마 등) 한국을 고위생 감시국으로 지정하여 절차 간소화
 - (에콰도르) '25년 6월부터 한국 약전을 공식 참조 약전으로 인정

② 의료기기

□ 의료기기 산업 개요

- (규모) '25년 중남미의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194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8%의 성장 전망 (BMI, '25년 10월)
 - * 제품군별로는 소모성(Consumables), 진단영상, 정형외과 등 대부분이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는 5.2~7.8%대 성장 전망
- (수입) '24년 수입 규모는 약 95억 달러, 전년 대비 12.1% 증가하며 최근 3년간 지속적 증가 중. 품목별로는 기타 의료기기, 외과용 기구, 전기진단기기 등을 주로 수입

중남미 의료기기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HS CODE	2022년	2023년	2024년 (기준)	비중	증감률 (2023~2024년)
1	기타 의료기기	901890	4,053	4,697	5,268	55.0	12.1
2	기타 의료용기구	901839	1,872	2,110	2,358	24.6	11.8
3	전기진단기기	901819	673	833	766	8.0	-8.1
4	非유리 렌즈	900150	528	600	657	6.9	9.5
5	봉합재	901832	414	428	530	5.5	23.8

자료: Global Trade Atlas, '25년 10월

- (기업 동향) Medtronic, GE헬스케어 등 글로벌 기업은 영상진단, 수술기기 등 첨단 의료기기 공급을 주도하고, 현지 제조사는 중저가·소모품 위주 공급

중남미 의료기기 주요 기업

기업명	국적	주요 품목	특징 및 최근 동향
Medtronic	아일랜드	심혈관·수술기기·신경자극기	멕시코 티후아나 생산 거점, 브라질 심혈관 시장 강세
GE HealthCare	미국	영상진단, 모니터링, 초음파	CT 장비 설치 점유율 1위(34%). 공공조달 강세
Siemens	독일	영상진단, 검사실 진단, AI 분석	공공병원 현대화 사업 주요 수주 주체
B. Braun	독일	정맥주사, 투석, 수액 기기	브라질 생산 거점, 공공조달 납품 비중 60% 상회
Mindray	중국	모니터링, 초음파, 진단기기	여성 건강 초음파 보급 이니셔티브 추진
Grupo Arseus	브라질	중저가 의료기기, 소모품	정부 조달 60% 이상 점유, 현지 조립 확대
Silmag	아르헨티나	진단시약·소아용 의료기기	수출 비중 확대 중

자료: BMI, Reuters, Global Health Intelligence 등 종합

□ 기타

- (인증) 한국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인증 간소화 추세
 - (파라과이·파나마 등) 한국을 고위생 감시국으로 지정하여 절차 간소화
 - (멕시코) '25년 9월부터 한국을 의료기기 위생등록 동등성 인정 국가로 지정
- (의료관광) 멕시코는 의료관광 세계 5위 국가로 미용·성형 등 의료관광에 적합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 치과·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간접 수요 확대
- (원격의료) 팬데믹 이후 브라질은 TeleSUS 등 원격 의료가 확대되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요도 동반 성장

다. 인프라

□ 건설 산업 개요

- '25년 중남미의 건설업 규모는 2,932억 달러로 2024년에 비해 1.1% 감소(BMI)
 - * 멕시코에서 대미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 및 Tren Maya 등 대형 공공프로젝트 종료에서 기인
- BMI에 따르면 중남미는 전 세계에서 인프라 부문 경쟁력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 내 제도적 결함, 정책적 리스크 완화가 개선 과제로 부각
- 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개발 수요에 따라 투자 기회가 확대될 전망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현지 주요 기업) 중남미 인프라·건설 시장은 로컬 대형 건설사와 글로벌 자재·장비 업체(DOKA, Hitachi 등)가 주도하며 PPP(민관합작) 및 민간투자 확대 기조

(참고) 중남미 건설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사업 분야	기업 최신 동향
Hitachi Construction Machinery	건설기계	2025년 4월부터 칠레에 라틴아메리카 본부를 설립해 현지 부품·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최근 북·중남미 조직을 분리해서 현지 대응력 제고
Doka GmbH	거푸집	콜롬비아 톨리마 지역의 터널 프로젝트에서 Doka의 터널용 거푸집 및 지지 시스템 활용. Doka는 중남미 각국에서 프레임형 거푸집 적용 중
Lintec & Linnhoff	거푸집, 품목 장비 등	브라질 내 두 회사 통합 운영을 완료하고 “Lintec & Linnhoff Brasil”로 재편하여 라틴아메리카 전역의 건설 및 도로 시장 대응력 강화
Caterpillar	건설기계	'25년 2분기 결산에서 중남미 지역의 건설기계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0% 하락했으며, 이는 환율 영향과 딜러 재고 감소가 주요 원인
Cemex	건축자재	멕시코 기반의 글로벌 시멘트 및 건설자재 기업. 건축 자재 공급망과 지역 생산 거점 유지하며 중남미 내 높은 시장 점유율 유지
SalfaCorp	건설	칠레 기반의 종합 건설 회사로, 토목·해양·터널 등 공사 수행. 남부 칠레 및 인접 국가 프로젝트 확장 중

자료: KOTRA 국별 진출전략 자료 종합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공공 인프라 참여) 중남미 주요국은 정부 재정 한계로 PPP 확대 → 한국 건설사·금융사 컨소시엄 참여
- (노후 인프라 교체) 전력망, 교통 인프라, 수도·하수 등 유지보수 지연 → 한국의 스마트 유지보수 솔루션·기술 수출 가능

- (에너지 전환) 브라질·칠레 중심으로 태양광·풍력·수소 관련 프로젝트 증가 → 재생에너지 EPC·운영 경험 있는 한국 기업 협력 기회

□ 기타

- (정부 주도) 민생과 직결된 도로·병원·공항·수처리 프로젝트가 다수 차지
- (민간투자 확대) 재원 측면에서는 정부 재정의 한계로 PPP 또는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증가하는 추세로 컨소시엄을 통한 참여 기회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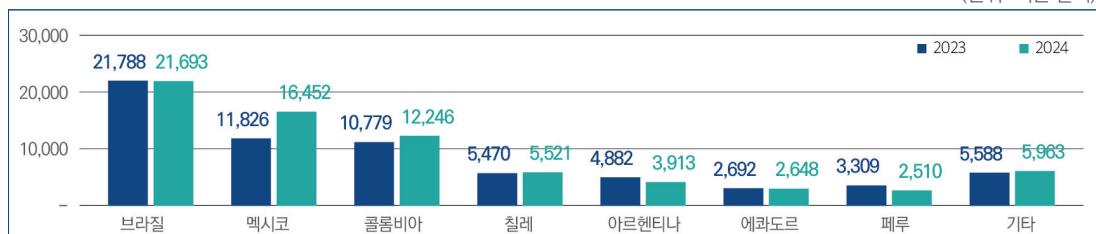
라. 방산

□ 방위 산업 개요

- (규모) 중남미 국방 예산은 브라질·멕시코의 규모가 크고, 콜롬비아 등 국내 안보 위협이 큰 국가는 치안·對드론 수요가 부각
 - * '24년 중남미 국방비 지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710억 달러로, 멕시코의 국방비 증가(+46억 달러, +39%)가 증가세 견인(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5년 4월)

〈중남미 국가별 국방비 지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5년 4월

- (교역 동향) 무기류·총포 부품 외 비살상·경호·경찰 장비 제품 수입 증가세
 - (브라질) 전통적 공급국(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더해 중국·튀르키예 수입 비중 확대
 - (칠레) '24년 对칠레 수입국은 중국(27%), 이탈리아(18%), 미국(15%) 순
 - (멕시코) 고가 체계보다는 총류·탄약류 수입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
 - (페루) 탄약 수입에서 중국 등 아시아 공급국 비중이 높음

□ 현지 방위 산업 최근 동향

- (현지화 선호) 브라질은 주요 체계(장갑차·전투기·전투함) 도입 시 현지 생산·합작 조건을 부여, 완제품 직수입은 제한적

- (치안 수요) 중남미 전반적으로 치안·대드론·경계 및 감시 장비 수요 확대
- (민간 수요) 에콰도르는 무기 소지법 통과·관세 인하로 민간용 무기 시장 개방

□ 기회요인

- (공동생산) 조선(SIMA·ASMAR), 항공정비(SEMAN), 브라질 항공·미사일 밸류체인(Embraer·AVIBRAS·SIATT) 연계한 부품·소재·전자광학·추진제 협업 수요
- (치안·崶드론) 드론·안티드론, 국경 모니터링·치안 솔루션 패키지 제안 유효
- (노후 장비 교체) 칠레(해·공)·멕시코(트럭·수송기·헬기·레이더)·페루(장갑차·함정) 등에서 방산 장비 교체 사업 지속 → 플랫폼·후속 군수·훈련 패키지 제안 유효

마. 자동차·부품

□ 자동차·부품 산업 개요

- 자동차 산업
 - (생산) '25년 중남미의 자동차 총 생산량은 762만 대로 전망되며, 이 중에서 승용차 생산이 335만 대, 상용차 생산이 427만 대를 차지(BMI, '25년 10월)
 - * '24년 기준, 멕시코가 58%, 브라질이 34%, 아르헨티나가 약 9%의 비중을 차지하며, 멕시코 생산 차량의 약 79%는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브라질·아르헨티나는 내수, 메르코수르 판매 위주(Marklines, '25년 10월)
 - (판매) '25년 중남미의 자동차 총 판매량은 647만 대로 예측되며, 이 중에서 승용차 판매가 411만 대, 상용차 판매가 235만 대를 차지(Marklines, '25년 10월)
 - * 브라질이 약 260만 대로 판매가 가장 많고, 멕시코가 약 160만 대로 두 번째로 판매량이 높음
- 자동차 부품 산업
 - (애프터마켓) '24년 중남미 애프터마켓 규모는 약 561억 달러이며, 2034년까지 연평균 6.6% 성장 전망(Expert Market Research, '25년 10월)
 - (OEM 공급) 멕시코의 OEM용 자동차 부품 시장 규모는 '24년 1,260억 달러 수준(INA)이며, 브라질은 245억 달러로 예측(Market Research Future, '25.10월)
 - (수출입 동향) 최근 3년간 중남미 자동차·부품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

중남미 자동차·부품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HS CODE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2023~2024년)
1	승합차	8702	86	97	128	31.9
2	승용차	8703	1901	2228	2259	1.4
3	화물자동차	8704	384	382	402	5.1
4	차량용 부속품	8708	2,410	2,255	2,643	17.2

자료: Global Trade Atlas, '25년 10월

□ 현지 주요 기업 동향

- (멕시코) 미국 관세 부과 이후, GM, 기아 등 일부 OEM은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미국 판매 가격 조정 등으로 대응 중이며 현지 생산 제품은 USMCA 준수율 높여 무관세 수출 유지를 통해 관세 충격 완화
- (브라질) 브라질 내 26개 OEM과 Tier-1 부품사 45개사가 생산 법인 운영
- (아르헨티나) '24~'25년 아르헨티나 자동차 시장은 토요타,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이 생산과 판매를 주도하며, 내수·역내 수출 동시 확대 전략 추진

□ 기타(향후 전망, 기회요인 등)

- (멕시코) '26년 USMCA 개정은 멕시코 자동차·부품 산업의 큰 변수로 작용 예정으로, 주요 쟁점은 중국산 부품 규제 강화, 역내부가가치생산비율(RVC) 상향임
- (브라질) 그린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완성차 관세는 인상, 부품은 낮은 관세 유지
- (아르헨티나) 인증 간소화·무역 자유화 통해 자동차 부품 조달 환경 개선
- (파나마) 중미 최대 자동차 부품 전문 전시회인 Latin Auto 활용 가능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FTA) 한국-중남미 FTA 체결 현황 및 유망 품목

- (체결 현황) 중남미 10개국과 FTA 체결(발효 예정인 에콰도르·과테말라 포함)

- (체결 완료) 칠레('04년), 페루('11년), 콜롬비아('16년), 중앙 아메리카('19년) 등과 FTA를 발효했으며, 에콰도르와는 '25년 9월 SECA(전략적경제협력협정)를 서명하여 '26년 상반기 발효 예정으로 중남미 10개국과 FTA 체결
- (여건 조성) 한국-멕시코, 한국-메르코수르 FTA
 - (한국-멕시코 FTA) 한국-멕시코 FTA 협상은 교착 상태로, 멕시코가 가입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분석 존재(KDI(한국개발연구원))
 - (한국-메르코수르 FTA) '21년 8월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나, 최근 한국-메르코수르 TIPP(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23년) 및 브라질의 다자주의 외교 강화에 따라 재개 가능성 존재



- (유망 품목) FTA를 기반으로 교역 품목 다변화와 협력 범위 확대
 - (칠레) 현재 대다수의 제품이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으며, 공급망·디지털 경제, 지식재산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고도화 전망
 - (페루) 과거 자동차·전자제품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FTA 체결 이후 현재는 석유화학 제품·철강 제품·화장품 등으로 품목 다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콜롬비아) FTA 활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로, '24년 기준 플라스틱이 77%로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였으며, 기계류·전자제품도 60%대의 활용률 기록
 - (에콰도르) SECA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정부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포괄하고 있어 발효 시 높은 단계의 협력국으로 격상 전망



FTA 활용 성공 사례 : 콜롬비아 대상 폴리프로필렌 및 하이브리드 차량 수출 성장세

- (개요) FTA 이후 주요 수입 품목 성장세
 - 폴리프로필렌(HS 390210) 수입, FTA 발효 이후 연평균 96.6% 성장세
 - 하이브리드 엔진 차량(비플러그인, HS 870340), FTA 발효 이후 연평균 29.9% 증가세
- 내용
 - (폴리프로필렌) 포장재·가구·의류 등 소비재 생산에 필수로 콜롬비아 제조업 전반에 높은 수요 존재
 - (하이브리드 차량) 주요 도시 통행 제한 면제 및 연비 효율성으로 수요 확대, FTA 적용 시 가격 경쟁력 확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폴리프로필렌은 한국 중소기업 다수가 생산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내 수요도 활발. FTA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어 한국 중소기업의 콜롬비아 시장 진출 및 확대에 유망

□ (G2G)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 (방산) 국방·치안 장비 현대화 관련 협력
 - (칠레) 양국 간 국방 협력 협정('23년 9월)을 기반으로 기술이전, 현지 생산, 군수 지원, 유지보수 및 시스템 통합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발굴 기대
 - (콜롬비아) 콜롬비아 육군은 탄약 조달을 위한 공개입찰 공고 등 공개입찰(RFP)과 정부 간 계약(G2G) 가능 국가와의 협력에 적극적
 - (멕시코) 멕시코 국방부(SEDENA)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15년 이상 노후된 차량 교체 사업(1,000대 규모), 이동형 레이더 2기 도입, 전술용 드론 도입 등 프로젝트 추진
- (에너지·친환경) 전력망 현대화, 수소경제 등 에너지 전환 협력
 - (에콰도르) 정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상품의 수입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전력 소비효율 A급의 가전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브라질) 태양광·풍력·원자력 등 대체 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협력 가능성



성공 사례 : 한전KPS 브라질 앙그라 원전 2호기 유지보수 프로젝트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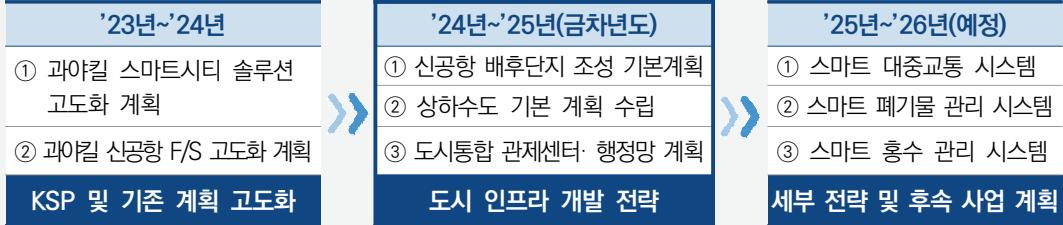
- (개요) 브라질 정부는 에너지 매트릭스 다변화를 위해 앙그라 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결정
 - 원전 운행을 위해 유지보수 수요 증가
- (내용) 한전 KPS, 205만 달러 규모 앙그라 1-2호기 유지보수 프로젝트 수주('24년 7월)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발주처 네트워킹을 통한 수요 조기 포착 및 비공개 정보 수집
 - 한국 개최 행사에 방한 바이어로 초청하여 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 기술력 홍보

- (개발 협력) KSP·EIPP 사업을 통한 정책 자문 및 한국 수주 기회 확대
 - * KSP(Knowde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경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 경제 성장에 필요한 정책 자문
 - * EIPP(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 : 중장기로 대형 인프라 중심 복합개발사업 기획 및 자문
 - (페루) 페루 정부는 VUCE 시스템을 개선하여 편리한 원산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이에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자문 진행(KSP)
 - * VUCE : 대외 무역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상품 무역과 관련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 (에콰도르) 과야킬市에 '21년 KSP의 후속 연계 사업인 EIPP를 통해 경제 인프라 확충 및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중으로 한국-에콰도르 경제 협력 강화



참고 사례 : 에콰도르 과야킬市 EIPP(경제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 사업명 : '24~'25년 에콰도르 과야킬市 스마트시티
- 주요 내용 : 과야킬市의 도시·사회 문제 해결 및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대형 인프라 개발 계획을 정책 제언 형태로 지원
- 연도별 추진 계획



나. 프로젝트

□ 주요 국가별 유망 프로젝트

- (페루) 국가 기반 시설 구축, 개선 및 확대 중심 기초 인프라 사업 활발
 - '26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 가능성에 따른 정책·집행 불확실성 존재
 - 정부와 민간 투자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PPP 형태 사업 활발

'25년~'26년 페루 주요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단위: 백만 달러)

분류	한국어	내용	예산 규모 (선정 예정)
수자원	리마市 식수 공급, 수도시설 공사	리마 수도권 150만 명을 대상으로 안정적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사업. 원수 취수 시설·송수관·저수지 및 정수 시설 건설 포함	486.2 (2025년 4분기)
	모케구아, 일로 해수담수화·식수 공급	태평양 연안 도시 일로에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하여 24시간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 생산된 담수는 산업단지 및 가구 활용	110.0 (2026년 1분기)
	타라포토· 산호세데시사 하수처리장	아마존 지역 주요 도시 2곳에 하수처리장 건설. 준공 후 장기 운영·관리까지 포함	143.1 (2026년 1분기)
	카하마르카시 하수처리 및 재이용	도시 하수를 수집·정화 후 재사용 가능한 용수로 전환. 하수처리 플랜트 및 재이용 네트워크 포함	88.2 (2026년 1분기)
	왕카요 및 주변 지역 하수처리 개선	왕카요 및 주변 지역에서 하수 수집·처리 역량 확대. 34km 주 하수관로·현대식 하수처리장 및 운영 시스템 구축	229.1 (2026년 2분기)
	트루히요·체펜 하수처리 및 재이용	북부 연안 주요 도시 2곳의 하수 처리 개선. 주 하수관, 펌핑장, 방류관, 대규모 처리장 건설 포함	425.0 (2026년 2분기)
	찬카이-람바예케 통합 수자원 시스템	신규 댐 건설, 관개·운하 시스템을 확충하여 농업·생활용수 공급. 대규모 수자원 관리 인프라 구축	619.0 (2027년 4분기)
	카네테 하수처리 개선	리마 남부 카네테 지역의 하수관·펌핑장·처리장 신설로 위생환경 개선 및 재이용 촉진	144.0 (2026년 4분기)
	치네카스 관개 프로젝트	북부 안카시 지역에서 산타강 일부를 취수하여 농업 관개 확대. 대규모 관개 채널·저수지·농업용수 시스템 포함, 일부 생활용수 제공	3,800.0 (2027년 4분기)
	친보테 신규항 건설	북부 지역에 다목적 신항만을 건설하여 광물·어업·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능력 확대. 부두·하역시설·물류센터·항만관리 포함	273.6 (2025년 4분기)
교육	초케키라오 공원 관광 인프라 개선	유적지 관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로, 케이블카 설치·관광 센터·보행로·서비스 시설 개선 포함	260.9 (2025년 4분기)
	리마市 교육 시설 인프라 교체	안전에 취약한 공립학교 13곳을 신축하고, 교실·과학실·도서관· ICT 설비 등 현대식 교육 인프라 구축	301.5 (2026년 2분기)
	비야 마리아 델 트리운포 교육 인프라 개선	리마 남부 빈민 지역의 공립학교 5곳을 신축하고, ICT·체육·급식 시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70.3 (2026년 4분기)
의료	쿠스코 교육 인프라	쿠스코·완차·산 헤로니모 지역의 노후 공립학교 3곳을 재건축. 교실·과학실·위생시설·디지털 기자재 보강	59.7 (2026년 4분기)
	신 중앙군병원 건설	최신식 군 병원 신축 사업으로, 500병상 이상 규모. 설계·건설과 함께 장비 공급, 운영 및 유지관리 포함	442.2 (2025년 4분기)

자료: 페루 투자청 ProInversion, '25년 8월

- (칠레) EPC를 넘어 유지보수·운영, 시스템 통합, 정책 협력까지 폭넓게 가능
 - 항만·공항·도로 등 교통 인프라 전반에서 대형 확장·현대화 추진 중
 - 친환경·자동화 항만, 교통량 예측·관리, 교통 데이터 플랫폼 등에서 기술이전·공동연구·파일럿 실증으로 차별화된 모델 제안 여지 큼
- (브라질)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 기회 확대 전망
 - 브라질은 수력이 전력 매트릭스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및 홍수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태양열·풍력·원자력 에너지 개발
- (콜롬비아) 교통·통신 인프라 분야 주요 정부 프로젝트 발주 전망
 - (교통) 철도 복원·도시 트램 신설, 마니살레스 '아에로카페' 신공항('25년 말~'26년 초 국제입찰 예정), 주요 항만 현대화(치에나가·카르타헤나·투르보·부에나벤투라) 등
 - (통신) 농촌 디지털 연결성 확대('26년까지 5,168억 달러 투자)로 전국 농촌 학교·약 14만 4,000 가구에 인터넷 보급, 접근율 85% 달성을 목표
- (멕시코) 국가 인프라 계획('25년) 추진 및 니어쇼어링 지속을 위해 노후 전력망, 상하수도 시설 현대화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중
 - (에너지) 멕시코 전력청(CFE)은 '30년까지 송배전 인프라 확충과 추가 발전소 12기 건설, 집광형 태양열·수소 등 신재생 확대 계획 → 변압기·모듈·송배전 기자재 수요 급증 전망
 - (인프라) '국가 인프라 계획 2025'로 철도·고속도로·항만·공항 개선 가속, '25년 6월 헌법 개정으로 여객철도 국가 우선 과제화
 - 한국 기업에 송배전 기자재·수처리·EPC/O&M(유지보수), 철도차량·신호·역사·공항시설 등 패키지형 참여 기회 확대 전망

멕시코 인프라 주요 프로젝트

분야	프로젝트	사업기간	예산 규모
철도	멕시코시티-푸에블라-베라크루스 철도	'26~'30	20억 달러
공항	칸쿤 국제공항 확장	'25~'28	4억 5,000만 달러
항만	베라크루스 항만 2단계 확장	'25~'29	8억 달러

다. 공급망(자원 개발)

□ 칠레

- (개요) 칠레는 구리 매장량 및 생산량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및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목해야 하는 국가임
 - 대형 광산과의 수입 계약뿐만 아니라 중소형 광산 탐사 혹은 개발 프로젝트 참여 또는 지분 투자 고려 가능. 이를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 중단 등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며, 광산 운영·정제·운송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관여도를 높여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한국수출입은행과 칠레 국영구리공사(Codelco)는 '23년10월 MOU를 체결해 한국 기업의 구리 확보, 혹은 Codelco에 장비·기술을 수출할 경우 파이낸싱을 제공하기로 한 바, 우리 기업들의 보다 활발한 협업 기반이 마련됨



활용 가능 사례

- '24년 3월 한국수출입은행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캐나다수출개발공사(EDC), 독일 KfW IPEX-Bank 등과 함께 칠레 센티넬라 구리광산 확장 사업에 총 2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공동 제공. 해당 사업은 신규 광구 개발 및 정광 처리 공장 건설을 포함하며, 완료 시 센티넬라 광산의 연간 구리 생산량은 약 14만 톤 증가해 세계 15위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됨
- (ESG)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특히 수자원 관리, 환경 영향 평가, 광산 폐기물(Tailings Dam) 관리 등이 칠레 내부 및 국제 시장에서 더욱 엄격해지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해질 전망

□ 브라질

- (생산) 브라질은 전 세계 광물 생산 가치 기준 11위 국가로, '2024년 생산량 기준 니오븀(1위)·철광석(2위)·흑연(4위)·니켈(8위) 등 핵심 광물 다수 보유

브라질 주요 광물 매장량 및 생산량

구분 (원광기준)	매장량 (톤)	세계 순위	비중 (%)	연도별 생산(톤)				
				2022년	2023년	2024년	순위	비중(%)
나오븀	16,000,000	1	94.1	59,800	78,700	71,000	1	89.8
철광석	34,000,000	2	18.9	388,000	431,000	410,000	2	15.8
흑연	74,000,000	2	22.4	63,600	82,000	87,000	4	6.7
망간	270,000,000	3	15.9	494,000	542,000	400,000	6	2.0
니켈	16,000,000	3	16.0	77,100	76,000	83,000	8	2.5
회토류	21,000,000	3	16.2	600	500	80	10	0.03
탄탈륨	40,000	3	-	470	360	370	2	18.5
보크사이트	2,700,000	4	8.7	31,000	33,000	33,000	4	8.7
바나듐	120,000	5	0.5	6,620	5,780	6,200	4	6.2
주석	420,000	6	9.1	16,900	15,517	18,000	6	5.8
마그네슘	200,000,000	6	2.9	1,800,000	1,600,000	1,500,000	4	5.6
금	2,400	7	4.6	78	61	60	14	1.9
리튬	250,000	8	1.0	1,420	1,700	2,200	5	1.7

자료: U.S. Geological Survey, '20~'24년

- (수출) '24년 933억 달러로 중국(45.7%)·미국(8.8%)이 높고, 한국은 1.9%로 9위
- (동향) 철광석·보크사이트·금 외에도 첨단 산업 핵심 광물 탐사·개발 본격화

III. 진출전략

- | | |
|-----------------|----|
| 1. PEST/SWOT 분석 | 52 |
| 2. 진출전략 | 54 |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멕시코, 칠레 등 주요국은 주 40시간제 도입, 연금 개혁 등 사회 제도 개편 진행 중
- 브라질은 미국과 관계 악화로 새로운 협력 파트너 필요
- 페루·칠레·콜롬비아 등 주요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 변화 전망



경제(Economic)

- 지역 성장률은 2025년 2.2%에 비해 2026년 2.4%로 회복 전망
-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영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
- USMCA 재협상 결과에 따라 멕시코 무역 환경 변화 전망
-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칠레·페루 등 자원 부국 무역수지 개선 기대
- 아르헨티나는 균형 재정·공공투자 확대 기조 속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외환 불안 등 구조 리스크 병존



사회문화(Social)

- 치안에 대한 사회적 불안 확산으로 보안 장비 및 인프라 수요 증가
- 계층별 소득 양극화가 확대되어 프리미엄·저가형 시장 분리
- 한류의 인기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사회 현상으로 자리매김
- 칠레의 합계출산율은 1.03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권을 기록
- 콜롬비아의 빈곤율이 40%('21년) → 32%('24년)로 하락



기술(Technological)

- 각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 배터리, 에탄올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 수요 확산
- 핀테크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며,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
- 치안, 교통, 에너지 관리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수요 증가
- 공공부문 디지털화 가속화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전자·IT 등 첨단 기술 분야 경쟁력 보유
- 삼성·LG·현대 등 한국 기업과 제품 신뢰도
- 한국의 안정적인 제품 공급 및 생산 능력
- 한류 확산에 따른 국가 브랜드 인지도

약점(Weakness)



- FTA未체결국으로 경쟁력 약화(멕시코·브라질)
- 언어·문화적 차이 및 상호 이해 부족
- 원거리로 인한 높은 물류비 및 긴 운송 시간

기회(Opportunity)



- 제조업 강화·인프라 확충 관련 협업 수요
- 인터넷 보급·중산층 확대로 구매력 증가
- USMCA 활용한 对미 무관세 수출(멕시코)

위협(Threat)



- 아시아 수입 규제 및 관세 부과(멕시코)
- 화물 도난과 범죄로 인한 보안 비용 증가
- 현지 판매를 위한 인증 등 복잡한 절차
- 경기 하강 가능성과 가격 민감도 상승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인지도를 기반으로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확대
- 한류 콘텐츠 연계 마케팅으로 소비자 공략



국가 브랜드 활용한 전략 산업 진출 확대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글로벌 구매·생산 최적화를 통한 비용 절감
- 압도적인 사용자 경험 우위로 가격 차이 극복



기술·감성 투트랙 차별화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현지 기업·정부기관과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
- 현지 생산 확대로 내수·미국 시장 동시 공략



생산 거점 활용을 통한 접근성 제고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한국-멕시코, 한국-메르코수르 FTA 체결을 위한 여론 조성
- KOTRA 무역관 통한 인증 정보 입수



제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2. 진출전략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K-소비재

- 현지 친화형 마케팅으로 메이저 시장 공략
 - 한국 트렌드와 현지 문화를 접목한 제품 출시
 - 팝업스토어·전시회·인플루언서 등 소비자 체험형 홍보 강화
 - '윤리적·지속가능성' 소비 트렌드에 맞춘 인증·패키징 개선

바이오의료

-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장기적 시장 진출 경로 확보
 - 주요국의 한국 제품 인증 간소화를 활용한 진입 가속화
 - 전시회·상담회 참가를 통한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 현지 '임상-학술-보험' 네트워크 구축

인프라

- 기술 경쟁력과 공공 금융 연계를 활용한 정부 인프라 수요 대응
 - 전력망·교통·수자원 등 인프라 확대 수요 모니터링
 - 개발 협력 사업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패키지형 진출
 - 팀코리아 컨소시엄 상시화 및 레퍼런스 선제 제시

방산

- KOTRA 중심 역량 결집으로 팀코리아 수주 활동 전개
 - KOTRA의 기업 지원 체계 활용한 현지 밀착 대응
 - 현지화 계획 수립을 통한 중남미 각국의 조달 기준 충족

소부장

- 현지 생산·함작 투자를 통한 북중남미 공급망 진입
 - 멕시코를 미국 무관세 수출을 위한 진출 거점으로 활용
 - 브라질 진출을 통한 메르코수르 거대 시장 공략

전략 ①**(K-소비재) 현지 친화형 마케팅으로 메이저 시장 공략****전략 수립 배경**

- 6억 명이 넘는 거대 소비 시장으로,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FMCG 지출이 두 자릿수 성장
- 품질 신뢰도·트렌드 선도력·K-콘텐츠 파급력을 매개로 K-소비재의 급속한 시장 확대 양상

□ 현지 동향

- (시장 규모) 6억 5,000만 명의 거대 소비 시장으로, 소비재 지출이 빠르게 증가
 - '23년 중남미의 일용소비재(FMCG) 지출은 인플레이션(5%)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4.3% 증가 했으며(세계 평균 8%), 가구당 연간 약 928달러 소비
 - * 일용소비재(Fast-Moving Consumer Goods) : 세제, 화장품, 세면용품, 음료, 간편식 등 소비 속도가 빠른 비내구성 소비재
 - 식품(35.7%), 음료(22.1%), 홈케어(15%) 등이 소비재 지출의 주요 항목
 - * '24년 중남미 식품 시장은 약 8,000억 달러, '23년 중남미 화장품 시장은 약 359억 달러 규모
- (가치 소비) 환경·사회 책임에 민감해지며 윤리성·지속가능성·웰니스가 선택 기준에 포함
 - * 예시 : 콜롬비아 소비자의 75%가 “내 소비가 환경에 영향” 인식)
- (한류 영향) K-콘서트와 OTT 콘텐츠 유통이 소비로 이어지며, 꾸준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은 2025년에 폭발적으로 성장
 - * '25년 화장품 수출액 107% 성장 : ('24년 8월 누적) 5,400만 달러 → ('25년 8월 누적) 1억 1,200만 달러

□ 유망 품목

- (화장품) 기초화장품 고성장세 속, 메이크업·립스틱 제품도 시장 확대 추세
 - * '25년 8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기초화장품(178%), 메이크업용(126%), 립스틱(636%) 성장
- (식품) 라면, 인스턴트 커피, 음료·주류가 식품 수출액의 60%에 해당('25.8월 누적)
 - * (라면) 2,160만 달러, (인스턴트 커피) 1,680만 달러, (음료·주류) 2,370만 달러
 - '25년 8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라면(32%)과 인스턴트 커피(150%)는 고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음료·주류는 수출액 감소(-6%), 단 과자류가 44% 성장하며 새로운 유망 품목으로 부상

□ 진출전략

- (제품) 한국식 트렌드를 반영하되 현지 취향에 맞춘 화장품·식품 라인 확대
 - (화장품 : 제품 라인 확대) 한국식 화장법 유행에 따라, 기초화장품 중심에서 색조·메이크업 제품 등 라인 확대

- (식품 : 현지화된 상품) '자발적으로 반복적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현지 식문화에 맞는 제품 선택 필수
- (유통) 옴니채널 공략으로 소비자 접근성 확대
 - (온오프라인 병행) 오프라인(대형마트·주류/식품 리테일)+온라인(Mercado Libre·Falabella·Amazon) 동시 전개로 도달 극대화
 - (유통 현지화) 소주·K-간편식은 카테고리별 핵심 리테일 입점 확대, 시식·레시피, 페어링과 결합한 MD 운영
- (홍보) 한류·체험형 캠페인 확대
 - (선순환 설계) K-아티스트 협업 룩/레시피/루틴을 속품·챌린지로 구현, 론칭쇼·로드쇼와 연동하여 체험 → 리뷰 → 재구매 선순환 구조 설계
 - (OTT/콘서트 활용) 콘서트·OTT 흥행 지역에서 팝업·콜라보 SKU 전개("그때 본 그 제품"), 현지 팬덤과 경험 중심 소비 연결
- (인증) 신뢰성 라벨 확보 및 지식재산권 보호
 - (라벨 확보) 화장품·식품의 성분·안전·친환경 라벨을 사전 확보(국가별 규정·표시 언어) → 신뢰 격차 확대
 - (지식재산권 보호) 상표 등록·법률 자문·KOTRA-지식재산보호원 협업으로 유사 K-제품 차단

소비자 관련 주요 마케팅 행사

구분	내용	시기
종합	중남미 소비자 온라인 수출상담회(온라인)	'26년 하반기
	멕시코 소비자 무역사절단(멕시코시티)	'26년 3~4월
	파나마 종합전시회 한국관(파나마)	'26년 3월
	멕시코 소비자 무역사절단(멕시코시티)	'26년 3~4월
화장품	멕시코 K-뷰티 팝업스토어(멕시코시티)	'26년 4월, 11월
	멕시코 온라인 유통망 K-뷰티관 입점 지원(멕시코시티)	'26년 5~7월
	아르헨티나 Mercado Libre 입점 지원(부에노스아이레스)	'26년 5~10월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오송)	'26년 10월 예정
	Beauty Fair 연계 K-뷰티 수출상담회(상파울루)	'26년 9월
식품	Expo Beauty Show(멕시코시티)	'26년 11월
	서울 푸드(Seoul Food) 멕시코·과테말라·쿠바관 운영(킨텍스)	'26년 6월
	2026년 농식품 수출 다변화 사업(칠레, 과테말라)	'26년 연중

전략 ②

(바이오의료)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장기적 시장 진출 경로 확보



전략 수립 배경

- 인허가·조달 제도 등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높아 현지 파트너십 기반의 접근 필수
- 우수한 품질·기술 경쟁력과 임상데이터 신뢰성을 바탕으로 현지 병원·유통·학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진출 모델 설계 전략 필요

□ 현지 동향

- (고령화·소득 증가) 구조적 요인에 의한 빠른 시장 성장
 - 중남미 바이오의료 시장은 고령화·만성질환 증가로 연 6%대 견조한 성장 전망
 - * 중남미 의약품·의료기기 시장 규모 : ('25년) 1,066억 달러 → ('29년) 1,408억 달러, +32.1% (KHIDI(한국 보건산업진흥원))
 - 멕시코 성인 당뇨 환자는 '24년 1,358만 명으로 '50년 1,990만 명 전망(IDF(국제당뇨병연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4년 8%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 진입
- (경쟁 격화) 수요 확대와 함께, 글로벌·현지 기업의 진출 본격화
 - (제약) 항암제·면역치료제 중심으로, 제네릭 및 CMO 기업까지 폭넓은 진출
 - * 신약 : 로슈(스위스, 항암제), 화이자(미국, 백신·항생제), 노바티스(스위스, 심혈관계 치료제) 등
 - * 복제약 : EMS·Eurofarma(브라질), Teva(이스라엘), Cipla·Aurobindo(인도) 등
 - (의료기기) 영상·체외진단을 넘어 수술·재활 등 치료기기 수요도 꾸준히 증가
 - * 진단기기 : GE Healthcare(미국, 초음파), Mindray(중국, 환자모니터), Siemens(독일, 영상진단)
 - * 치료기기 : Medtronic(미국, 심장시술·당뇨기기), Braun(독일, 정형외과·마취기기) 등
- (진출 환경) 성장 잠재력과 구조적 진입장벽이 공존하는 이중 구조
 - (장애요인) 시장의 외형 성장은 뚜렷하나, 제도·수익 구조상 진입장벽 상존

인허가	국가별 기준 상이, 승인절차 복잡, 심사기간 장기화 등
조달 제도	정권 교체, 입찰방식 변경 등 정책 변수로 사업 예측성 저하
수익성	약가 상한제, 환율 변동 등으로 실질 마진 확보 어려움
-	
(기회요인)	파생수요, 보건체계 구조전환 등으로 신규수요 창출여지 확대
3대 현안	고령화·만성질환·면역질환 확산 → 국민건강, 보건 재정 수성을 위한 대비책 시급
공급·소비 패턴	공공·민간·보험 등 복합 공급 체계 및 전문 클리닉, 검진 수요 확대
공공부문	정부 주도의 인프라 확충, 보건 재정 확대, 국제 조달 개방 등 구조 개편 본격화

□ 유망 품목

- (의료기기) 디지털 원격의료 솔루션 및 고령화에 따른 의료기기 수요 증가
 - (원격의료) 원격진료 플랫폼, 환자 모니터링 앱 등 디지털 및 원격의료 솔루션 등
 - (고령화) 낙상 감지 센서, 전동 보행 보조기, 건강관리 키트, 치과용 CT, 체외진단기기(IVD), 인공 관절 등 품목 유망
- (의약품) 항노화·만성질환·중증질환용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유망
 - 항노화 관심 증가에 따라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 BTX), 필러 등 비수술적 시술 관련 제품, 만성질환 예방 및 전문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수요 증가
 - 고혈압·당뇨·고지혈 치료제,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 수요 증가

□ 진출전략

- (현지 제휴) 인증 및 입찰 참여를 위한 현지 제휴
 - ANVISA(브라질)·COFEPRIS(멕시코) 등 현지 인증 부담이 큰 품목은 현지 유통사·의료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 진입
 - PDP 제도(브라질, 생산개발파트너십) 또는 현지 기업과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 의약품·의료기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출
 - 디지털헬스·원격진단 제품은 민간 병원·보험사와 연계 모델 개발
- (고객 범위 확대) 현지 ‘임상–학술–보험’ 네트워크 구축
 - 고객 범위를 병원 관리자·의사·보험자(보험심사)까지 확장(B2I(Business to Individual))해 임상·경제성 메시지를 병행
 - 주요 학회·전시(예시 : 멕시코 Expofarma·Expo Med, 페루 Tecnosalud)에 K-세션·핸즈온 워크숍을 열어 임상·사용 경험을 축적
- (국내외 행사 참가) 전시회, KOTRA 주관 상담회 참가 등을 통한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바이오의료 분야 주요 전시회·상담회

분류	개최 국가	행사	개최 시기	핵심 분야·비고
해외 전시회	멕시코	ExpoMed	'26년 8월 18~20일	멕시코 최대 B2B 의료 전시회
		ExpoFarma	'26년 3월 24~26일	제약·원료·제제·설비 등
	브라질	Hospitalar	'26년 5월 19~22일	중남미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칠레	ExpoSalud	'26년 하반기	병원·헬스케어 종합
	페루	Tecnosalud	'26년 9월	페루 최대 의료기기 B2B 전시회
	콜롬비아	MEDITECH	'26년 7월 28~31일	콜롬비아 대표 의료 전시회(병원·IT·장비)
	아르헨티나	ExpoMEDICAL	'25년 9월 24~26일	아르헨티나 최대 의료 B2B 전시회
국내 상담회	한국	GBPP	'26년 하반기	KOTRA 주관 의약품 수출상담회
	한국	GMEP	'26년 상반기	KOTRA 주관 의료기기 수출상담회
온라인 상담회	온라인	한국-중남미 바이오테크 파트너십	'26년 하반기	바이오의료 분야 온라인 수출상담회

전략 ③

(인프라) 기술 경쟁력과 공공 금융 연계를 활용한 정부 인프라 수요 대응



전략 수립 배경

- 중남미 각국은 균형 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철도·전력망·수자원 등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PPP·혼합금융 기반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전망
- 한국은 EDCF·ECA 등 공공 금융 연계 역량과 EPC·시스템 통합·스마트 관리(EMS·AODB 등)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보유해 기획·PMO·EPC·O&M 연계형 패키지 제안에 강점

□ 현지 동향

- (정부 정책) 각국 정부는 투자 확대·균형 발전 위한 인프라 확대 드라이브
 - (멕시코) 국가 인프라 계획('25년)을 통해 철도·도로·항만·공항 개선을 가속, 멕시코 전력청(CFE)은 '30년까지 송배전·발전소·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제시
 - (파나마) 파나마시티-다비드 철도에 대한 마스터플랜('25년), PMO 입찰·건설 착수('26년)를 계획 중으로 한국 국토교통부와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 의지 표명
 - (파라과이) 비오세아니카 고속도로·국경 교량 등 역내 물류망과 송전망 확충 관련 2억 6,000만 달러 패키지 발주('25년) 및 10년간 50억 달러 규모 전력 투자 계획
- (재원 다각화) 재정, PPP, 혼합금융 등 재원 조달 방식의 다각화
 - * 파나마 철도는 PPP와 수출신용기관·상업은행 재원 조달 등 혼합금융(Blended Finance) 조합 유력
- (DX·ESG) 디지털 전환과 ESG가 정책 설계 시 필수 고려 요소로 정착
 - 교통·물·전력 프로젝트 설계 시 데이터 거버넌스(표준·인터페이스), 탄소·회복탄력성(기후 적응), 지역사회·포용(사회 수용성) 요건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정책 자문·표준 수립 항목이 제안요청서(RFP)에 독립 과업으로 포함되는 추세

□ 유망 품목

- (전력망) 중남미 각국의 전력난에 따라 전력망 확충 관련 설비 수요 증가
 - 변압기, 개폐장치, 케이블, 변전설비, 스마트미터, 배전 자동화, EMS(Energy Management System)·ESS(Energy Storage System, 재생에너지 BOS(Balance of System) 모듈 등
- (교통)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한 정책 수요 확대
 - (멕시코) 여객 및 화물 철도, 항만 현대화, 공항 확장 등 신호·요금 징수·관제·AODB(Airport Operational Database) 등 시스템과 EPC 동시 유망

- (수자원) 상·하수, 관개 등 수자원 인프라 관련 대규모 투자 확대
 - 파나마 담수호·운하 관련 개선 패키지에서 PMO·환경영향평가·재무설계 등 상위 과업 발주 계획

□ 진출전략

- (패키지화) 팀코리아 컨소시엄 상시화 및 레퍼런스 선제 제시
 - ‘공공기관(공항·철도·도로·수자원·전력) + 개발 금융(EDCF(대외경제협력기금), ECA(공적수출 신용기관)) + 엔지니어링·시스템 통합 + 기자재’로 표준 컨소시엄 템플릿 구축하고 국가별 변형 적용
 - 제안서에서 ‘기획 → PMO·TA → EPC·O&M’을 하나의 흐름도로 제시해 연계형 패키지를 명확화하고, 파나마 철도(‘26년 PMO)처럼 상위 과업을 진입 포인트로 확보
- (파이낸싱) 혼합금융 기획 및 위험 배분 표준안 제시
 - F/S·PMO 단계는 EDCF·EIPP·KSP 등 원조성 자금과 결합, 본 사업은 ECA 보증·상업금융·MDB (다자개발은행)로 패키징
 - 환율·정책·변경·수요 리스크에 대한 조정·해지·보상 조항, 물가·환율 연동을 표준 계약조항으로 준비
- (조달·인증) 조달 트랙 이원화와 인증 항목 선제 반영
 - 국제 조달은 MDB 기준에 맞춘 사전적격(PQ)을 준비하고, 국내 조달 및 PPP는 현지 파트너(법무·세무·건설)와 컨소시엄 대응
 - 전력·철도·수자원 등 각 분야 기술 규격·상호 운용성을 정책·표준 과업에 포함
- (운영 수익화) 운영 성과 연동 계약을 통한 수익 극대화
 - 전력(가용률·손실률)·물(누수율)·철도(정시성)·공항(처리 능력) 등 성과 KPI를 O&M 계약에 넣어 장기 수익화
 - 철도·전력·물 운영 데이터를 관제·디지털 트윈으로 수집·분석해 예지보전(예측 유지보수) 및 효율화 서비스로 수익 다변화

인프라 분야 주요 전시회·상담회

분류	개최 국가	행사	개최 시기	핵심 분야·비고
해외 전시회	브라질	FEICON Batimat Latin America	'26년 4월	건축자재·인테리어·전기·설비
	브라질	Concrete Show South America	'26년 8월	콘크리트·건설자재·플랜트 기술
	멕시코	Expo CIHAC	'26년 10월	건설·인프라·건축자재·스마트빌딩
	브라질	LAPEC	'26년 6월	석유·가스 탐사·생산(E&P) 기술 및 현장 응용
	브라질	Futurecom 2026	'26년 10월	ICT·통신·디지털 서비스
	멕시코	America Digital Expo	미정	ICT, 통신사, 클라우드, IoT, 빅데이터, SaaS
오프라인 상담회	멕시코	AI시티·드론 산업 로드쇼	'26년 10월	ICT, AI, 드론 등
	한국	GPPM	'26년 11월	조달 시장 발주처·벤더 초청 상담회
	미정	한국–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미정	ICT·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상담회

전략 ④ (방산) KOTRA 중심 역량 결집으로 팀코리아 수주 활동 전개



전략 수립 배경

- 중남미 각국은 국경 안보·치안·재난 대응을 중심으로 방산 수요 지속 확대 전망
- 고품질 장비와 신뢰성 높은 공급 이력, G2G 경험, 기술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 모델 제시 가능

□ 현지 동향

- (국가별 수요) 국경 보안·치안 강화·현대화 중심 방산 수요 존재
 - (멕시코) 카르텔 대응·치안 중심 수요와 노후 장비 교체 수요가 상존하며, 정부조달은 국내 입찰, FTA 대상 국제 입찰, 개방형 국제 입찰 3트랙으로 운영 중으로 비공개 입찰은 현지 에이전트 네트워크가 중요
 - (브라질) 현지 생산·기술이전 의무가 강하며, 국경 통합 감시, 해군 핵·잠수함, 공군 FX-2·KC-390 등 대형 프로그램이 지속 중으로, 수입 구조는 고부가 부품·시스템 위주이며, 완제품 직수입은 제한적
 - (칠레) 로비법을 비롯한 투명한 조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군 현대화 수요가 존재 → 전시회 등 공식 채널을 활용한 네트워킹 필요
 - (페루) G2G 친화·오프셋 선호(공동 생산·기술이전) → 한국 협력 성과가 지속되고 있으나 사업 지연·행정 리스크 존재

□ 유망 품목

- (보안) CCTV, 영상 분석 솔루션, 통합 보안관제시스템, 경찰·개인 호신 장비 등
 - 중남미 각 정부의 치안 강화를 위한 제품 구매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AI 기반 영상 분석과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등을 고도화하고자 추진 중
 - 경찰 배치 확대 등을 통해 치안 문제 해결을 모색 중이며, 이에 따른 방탄조끼, 호신용 봉, 수갑 등 구매 수요 존재
 - 고정·이동식 레이더, CCTV·관제, 안티드론 솔루션, 국경 감시(센서·통합관제), 방탄·진압 장비, 드론·對드론
- (재난 대응) 재해 복구용 중장비, 드론, 방재 시스템 등
 - 페루 정부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피해 발생 당시 현장 복구용 트랙터, 대형 로더,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대규모 구매한 바 있음
 -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필수 장비 조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방산) 장갑차, 전투기, 순찰차, 경비함 등

- 방 현대화 전략을 추진하며 육·해·공 전력 전반에서 장비 도입 수요 확대
- 기술이전·현지 공동 생산·부품 조달 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단순 장비 구매를 넘어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강조하고 있음

□ 진출전략

- (팀코리아) 중남미방산수출협의회 등 기업 지원 체계 활용한 현지 밀착 대응

* 중남미방산수출협의회 : 법정부 협력 기반 강화, 동향 공유 협의체(KOTRA, 공관 등 참여)

- (입찰·비공개 투트랙) Compranet(멕시코) 등 공개 포털 상시 모니터링 및 비공개·지명 입찰 대응을 위한 현지 에이전트와 군 네트워크 확보
- (선제적 벤더 등록) 칠레 등은 입찰 참여를 위해 군별 공급자 리스트 등록 필요
→ KOTRA가 번역·증빙·현지 법무 지원 가능

- (전시·로드쇼 활용) 전시회·로드쇼를 활용, 현지 방산 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 (전시회) KODAS·KADEX·DX KOREA(국내) 및 FAMEX(멕시코), FIDAE(칠레), LAAD(브라질) 공동관 및 홍보관 운영, 현지 군 면담과 에이전트 매칭 동시 진행
- 현지에서 개최하는 K-방산데이 및 포럼(1:1 상담·장비 시연·세미나 결합) 참가

- (현지화) 현지화 계획 수립을 통한 중남미 각국의 기준 충족

-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현지 생산·기술이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안서에 현지 조립·부품화 로드맵 구비 필요
- 로비법(칠레)·비공개 입찰(멕시코)·수출허가제(페루) 등 국가별 규정 확인 및 준수 노력

방산 분야 주요 전시회·상담회

분류	개최 국가	행사	개최 시기	핵심 분야 비고
해외 전시회	칠레	FIDAE	'26년 4월 7~12일	방위 산업, 항공우주 산업, 보안 산업 등 KOTRA에서 한국 홍보관 운영 예정
	브라질	LAAD	'26년 4월 14~16일	보안장비, 감시시스템, 정보보안 등
	멕시코	Expo Seguridad	'26년 6월 2~4일	보안 및 안전 관련 품목
국내 전시회·상담회	한국	DX KOREA	'26년 9월 16~19일	지상, 해양, 항공우주 전력 전반
	한국	KADEX	'26년 10월 6~10일	정보, 기동, 지휘통제, 화력, 우주항공 등
	한국	KODAS 한국방산수출상담회	'26년 10월	방위 산업 및 보안 산업 전반

전략 ⑤ (자동차 부품) 현지 생산·합작 투자를 통한 북중남미 공급망 진출



전략 수립 배경

- 중남미 자동차 산업은 역내 조달과 현지 생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과 자체 시장을 두 축으로 하는 이중 공급망 구조 강화
- 현지 진출 시 품질 경쟁력과 OEM 공급 경험을 기반으로 공급망 진입이 용이하며, 현지 조립·공동투자·A/S 네트워크 구축 역량을 통해 중남미와 미국 시장을 동시 공략 가능

□ 현지 동향

- (멕시코) 멕시코는 미국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이후 USMC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 비중을 더욱 늘리는 추세
 - * 24년 차량 생산 약 400만 대 중 87%를 수출하고 수출 차량의 80%는 對미 수출 해당(INEGI(멕시코 국립통계 지리연구소))
 - (미국 관세 정책) 미국은 USMCA 원산지 미준수 품목에 25% 펜타닐 관세를 부과 중이며, '26년 USMCA 재협상 시 원산지 규정 강화를 의제화할 전망
 - (FTA 미체결국 관세) 멕시코는 FTA 미체결국 대상 1,463개 품목에 10~50% 관세를 예고하여 역내 조달 없이는 對미국·對멕시코 가격 경쟁력 저하 리스크 존재
- (브라질) 브라질은 내수 중심 산업 구조로, 완성차 수입관세는 인상되는 반면 생산용 부품은 낮은 관세로 유지하여 부품 수입·현지 조달 수요 확대 추세
 - * '24년 차량 생산 약 250만 대 중, 15.6%를 수출, 수출 점유율 1위 국가는 아르헨티나(Marklines)
 - (친환경차 확대) 정부는 그린모빌리티 정책으로 저탄소 전환을 추진 중으로, 생산 과정의 탄소 관리·재활용 자재 사용 요구 및 친환경 차량 세제 감면 혜택 제공
 - (차량 안전 강화) 정부는 AEB(자율긴급제동시스템) 의무화 추진 중

□ 유망 품목

- (멕시코) 최근 멕시코 소재 글로벌 OEM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우리 기업의 현지 공급망 참여기회 확대
 - * (기아차) 공장 리톨링(1억 5,000만 달러), (토요타) 하이브리드 픽업트럭 생산 확대(14억 4,000만 달러) 등
- (브라질)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 열관리 부품, 카메라, 레이더, 긴급 제동 시스템 모듈 등 안전 향상을 위한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관련 품목의 수요 증가

□ 진출전략

- (멕시코) 미국 무관세 수출 및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한 멕시코 투자 진출
 - (중남미 거점화) 멕시코는 USMCA, 태평양동맹(PA) 등 미국 및 중남미 다수 국가와 FTA 네트워크를 보유 중이며, 이는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중남미로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 제공
 - * 멕시코의 FTA 체결 현황 : USMCA, PA, CPTPP, 칠레, 콜롬비아, 폐루, 파나마, 우루과이 등
 - (관세 대응) '관세 대응 119 헬프데스크(멕시코시티무역관)'를 보유한 분야별 현지 전문가 풀(법무·관세·회계·노무 등) 통해 **對미 관세 및 对멕시코 관세 대응**
- (브라질) 메르코수르 거대 시장 공략을 위한 브라질 투자 진출
 - (합작 투자) 브라질 주요 Tier-1 또는 중소 부품사와의 합작 추진 시 진입장벽 완화 효과가 있으며, 현지 유통망·인증 시스템에 신속히 적응 가능
 - (현지 조립) 반제품 또는 모듈 단위 수출 후 브라질 현지에서 최종 조립 진행하여 물류비·생산비 절감 및 세제 혜택 활용
 - * 대부분의 완성차는 메르코수르 외 국가로부터 수입 시 35% 관세율 적용
 - (사양 조정) 브라질 지역 특수성에 맞춘 제품 사양 조정
 - 유연연료자동차(FFV)의 높은 점유율, 고온·고습한 기후 환경에 적합하도록 전장부품, 내부 플라스틱, 하네스 등 현지화 필요
 - * 대부분의 차량이 FFV 방식으로 에탄올·가솔린 혼합 연료를 사용하기에 연료 계통 부품(연료호스, 펌프, 씰 등)은 에탄올 내화성, 부식 저항성 강화 필요
 - (현지 AS 체계) 애프터마켓 비중이 높은 중남미 시장 특성상, 부품 공급 외에도 유통, 설치, AS까지 포괄할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 확보 필요

자동차 부품 관련 주요 전시회·상담회

분류	개최 국가	행사	개최 시기	핵심 분야·비고
해외 전시회·상담회	온라인	중남미 자동차 부품 온라인 수출상담회	'26년 상반기	자동차 부품 전 분야
	파나마	Latin Tyre & Auto Parts	'26년 8월	자동차 부품 전반
	멕시코	멕시코 기계장비사절단	'26년 6월	우리 제조설비 기업과 멕시코 완성차 및 Tier 1·2 기업 간 세미나·상담회 진행
	브라질	브라질 Korea Autoparts Plaza	'26년 6월	현지 주요 완성차 소싱 수요와 국내 부품 공급 매칭
국내 상담회	한국	붐업 코리아	'26년 하반기	KOTRA 주관 최대 수출상담회로 자동차 부품, 소비재 등 전 분야 대상



전기차 부품 및 중전설비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칠레) 전기차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칠레) 주유소 COPEC, ENEX(Shell), 전력 회사 Enei에서 충전 인프라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칠레)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엔지니어링사, 건설사가 협력해 주요 사업자에게 패키지를 제안 |

의료 및 미용기기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의료기기의 경우 X-ray 등의 진단장비를 제외하고는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의료기기 시장은 빠른 속도로 진화 중 -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원격 건강 모니터링, 수술 보조가 가능한 첨단·혁신 기술에 대한 수요가 확대 중 - 기존 의료 인프라에 원활히 통합될 수 있는 비용 효율적 솔루션에 대한 요구도 강함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9위 의료기기 시장으로 중남미 최대 소비 국가 - 3년('22~'25년) 평균 수입증가율 10.5%로 빠른 시장 성장 및 높은 수입 의존도 • 브라질 뷰티 시장 규모 약 226억 달러로 세계 4위 • (아르헨티나) 팬데믹 이후 원격진료·모바일 헬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고령화·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이 결합되며 개인용 기기 수요가 커지고 있음 • (에콰도르) 공공 병원 노후 장비 교체, 민간 병원 및 전문 의료센터 확충 수요 증가 • (콜롬비아) 정부 및 의료기관의 예방의학 강화 정책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통해 환자에 대한 신속한 예방치료를 지원하는 장비 수요 증가 • (파나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의료기기 수입이 증가 중이며 한국산 수입도 증가세 - 파나마는 중남미 고소득 국가이며 해외 이민자도 많아 고급 민간 병원 중심으로 고품질 제품 수요 상존 • (파라과이) 보건 예산 확대 및 현대화 추진으로 수요 증가 • 진단·치료 장비 및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수입 의존도 높음 •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진단, 치료용 의료 기기 수요 확대 중 - 피부 미용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인한 각종 시술 및 홈케어 수요 증가 중 |
|------|---|

시장동향

• (파나마)

- HS Code 9018의 '24년 수입액은 1억 3,800만 달러
- 수입 품목 10위
-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비중이 높으나 중국 제품의 증가세도 두드러지고 있음

경쟁동향

• (과테말라)

- 유럽산 고급 의료기기, 저가 중국산 의료기기 수입 비중이 높음
- 중저가 시장의 경우, 중국산 사용 후 낮은 품질로 이를 다시 찾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멕시코) 애보트, 존슨앤존슨, 메드트로닉, 필립스 헬스케어, 지멘스 헬시니어스, 짐머 바이오메트 등 글로벌 대기업이 주도 중

• (브라질)

- 미국, 독일, 일본 수입이 많으며, 진출 기업도 다수
- 첨단 기술이 탑재된 ANVISA 최고 등급(Class III) 생산 기업은 Medical San 등 소수

• (아르헨티나)

- 미국·유럽 고가 장비가 주류
- 현지 생산 기반은 제한적, 수입 의존도가 높음

• (에콰도르) 미국·독일·중국 제품 주류

• (콜롬비아)

- 초음파 진단기기 수입에서 한국은 2위
- 1위인 중국은 낮은 단가를 기반으로 경쟁 우위 확보

• (파나마)

- 미국과 독일, 일본은 마취기기, 내시경기기와 같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품목에서 강세
- 중국은 초음파진단기와 같은 범용 제품에서 성장 중
- 한국은 '25년 상반기 기준 수입국 9위로 매년 수입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

• (파라과이) 다국적 고가 브랜드와 중저가 브랜드 병존

• (페루)

- 범용 의료기기 : 중국산
- 하이엔드 장비 :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글로벌 브랜드 주도
- 전문가용 : 유럽, 브라질 제품
- 저가 가정용 홈케어 기기 : 중국산 점유율이 높음

- 진출방안**
- (과테말라) 가격 대비 고품질의 한국 의료기기를 현지 병원 및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병행을 통한 우수한 최신 의료기기 도입 추진
 - (멕시코)
 - 한국 기업은 전통적으로 공공조달을 겨냥하지만, 규제 대응이 비교적 수월하고 수요가 안정적인 민간 부문 기회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가장 효과적인 진출전략은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환경을 원활히 통과하고, 공공·민간 시장 모두를 커버하는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임
 - 멕시코 내 기존 제약·의료기기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규제·지급 리스크를 완화하고, 제네리릭 및 특수 치료 영역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수 있음
 - (브라질)
 - 정부의 공공입찰, 민관 파트너십(PDP) 정책을 활용하여 시장 진입
 - 단기적으로 현지 의료기기 업체를 통한 OEM 전략, 장기적으로 투자 진출을 통한 현지 생산 전략
 - ANVISA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어를 통한 시장 진입
 - (아르헨티나) 국제 재원(IDB·WB) 기반 프로젝트 참여로 조달시장 접근, 현지 유통사·병원과 협업해 공급망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에콰도르) SECA 발효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활용, 현지 의료기기 유통망 확보, 시연·전시회 통한 인지도 제고
 - (콜롬비아) 한국산 초음파 진단기기는 품질, 고객 지원, FTA 혜택을 기반으로 시장 내 입지 강화. 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
 - (파나마)
 - 대형 브랜드와 관계가 고착화된 바이어가 아닌 새로운 브랜드와의 협업 기회를 찾는 바이어 발굴
 - 주요 시장 납품 레퍼런스를 활용, 품질 우려 불식
 - (파라과이) 의료위생감시청(DINAVISA) 인증 등 규제 준수 및 경험 있는 현지 바이어 협력
 - (페루)
 - 인허가, 입찰 지원 AS 역량을 갖춘 현지 파트너 발굴
 - (전문가용) 설치, 사용자 교육, AS를 책임질 수 있는 기술 인력을 보유한 파트너 발굴
 - (홈케어) 가격 부담이 적고 사용이 간편한 입문용 기기 중심으로 SNS 마케팅 활용 및 온라인 시장 공략

화장품

- 선정사유**
- (과테말라) K-뷰티에 대한 현지 여성 소비자 관심 증대 및 FTA 수혜 품목(15% → 0%, 10년간 단계적 철폐)
 - (멕시코) 화장품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6.1% 성장이 전망, 한국 화장품은 수요와 맞물려 점차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 중
 - (아르헨티나)
 - K-팝·K-드라마 확산으로 K-뷰티의 인지도도 성장 중
 - 건강·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기능성·더모코스메틱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중
 - (에콰도르) 한류 확산으로 K-뷰티 인기 상승, 스킨케어·메이크업 수요 빠른 성장
 - (파나마)
 - 한류 영향, 한국 화장품은 파나마 시장에서 성장세
 - '25년 상반기 한국 화장품 수입은 전년 대비 64% 성장
 - (페루) 화장품 시장이 매년 꾸준히 확대 중 한류 확산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상승 중
- 시장동향**
- (파나마)
 - 중상위 GDP와 안정 성장세로 화장품도 성장세
 - 주요 쇼핑몰에 한국 화장품 전문 매장 잇따라 개점
- 경쟁동향**
- (과테말라)
 - 현지 생산업체(Flushing), 페루계 화장품 기업인 Belcorp 산하브랜드(ESICA, L'BEL, CYZONE 등) 강세
 - Mumuso, Miniso 등 한류 편승 브랜드 진출 중
 - (멕시코)
 - 글로벌 브랜드 : 천연·유기농 라인을 강화하며 제품군 다변화
 - 현지 기업 : 지속가능성·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며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주력
 - (아르헨티나)
 - Natura·로레알·Unilever 등 글로벌 기업이 주도 중
 - 2025년對한국 화장품 수입은 전년 대비 124% 이상 증가하여 기회 요인이 확인됨
 - (에콰도르) 미국·콜롬비아·프랑스 브랜드 강세, 현지 브랜드 저가 시장 점유
 - (파나마)
 - 프랑스 L'oreal, 미국 Estee Lauder 등이 시장 주도
 - 콜롬비아, 멕시코 등 인근국 제품도 다수 유입
 - (페루)
 - 페루 기반 글로벌 화장품 기업(Belcorp, Yanbal) 우세
 - 콜롬비아, 스페인, 중국 등의 화장품 수입 활발
 - 기초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의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성장 중

진출방안

- (과테말라)
 - 전문 온·오프라인 유통망 및 벤더를 활용, 진출 초기 「중남미 유력 소비재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통한 바이어 테스트마케팅을 위한 샘플 수입 유인 제공 가능
 - 소비재 팝업스토어, 유통망 협력 판촉전, 코리아세일페스타(KSF) 연계판촉전 등이 가능한 「1무역관 1유통망 협력사업」 참여 등
- (멕시코)
 -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체험하고 소통하는 경험 선호
 - 신규 진출 기업은 매장 내 체험존 운영이나 전시를 통해 사용 경험을 확대하는 전략이 효과적
 - (아르헨티나) 현지 인플루언서 협업 및 SNS 중심 '루틴 공유' 등을 활용해 마케팅을 강화, 더모코스 메틱 라인을 통해 약국·드럭스토어 진출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
 - (에콰도르) ARCSA(에콰도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 지원, SNS·인플루언서 마케팅 강화, Expo Korea 전시회를 통한 홍보
- (파나마)
 - 신흥국산과의 비교를 불허하는 '프리미엄'화 전략
 - 인스타, 유튜브 등 뉴미디어 적극 활용
- (페루)
 - 전시회 참가, 유통망 대상 홍보물 제작 지원, 현지 인플루언서 활용 등 소비자 직접 노출 기회 확대
 - 페루 기반 글로벌 화장품 기업에 대한 OEM 납품을 통한 중남미 진출 기회 모색

건설중장비**선정사유**

- (멕시코)
 - '23년 운송 인프라 투자액 2,140억 폐소 중 철도 분야가 1,240억 폐소를 차지
 - 정부는 단기적으로 철도 및 주택 프로젝트 착수를 약속하며 관련 수요 확대가 예상됨
- (에콰도르) 인프라 개발 및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지속 확대, 광산 개발·에너지 프로젝트 수요 증가
- (칠레) 칠레 주요 유통망, 물류 기업, 차량 수요가 많은 광업 분야 기업 등을 중심으로 수소 트럭, 중장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쿠바) 쿠바 정부, 제1수출품목인 광물 생산량 증가를 위해 관련 분야 투자를 실시할 가능성
- (페루) 인프라 투자와 건설업, 광업 성장세로 굴착기 등 주요 중장비 수요 지속 확대

-
- | | |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멕시코)<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가 장비 시장 : 캐터필러, 코마츠, 중국계 XCMG, 산이, 존디어, 볼보, 히타치 등이 주도- 경량 장비 시장 : 혼다, 허스크바나, CIPSA, Joper 등이 차지• (에콰도르) 미국 Caterpillar, 일본 Komatsu, 중국 XCMG, 현지 딜러사 중심 공급• (칠레) 전기버스, 전기차 등에 비해 수소차량 도입은 초기 단계이며 현재까지는 중국산 트럭 (Walmart Chile가 도입한 Feichi Technology 제조 수소트럭), 칠레 자체 생산 버스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 (쿠바)<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나다, 스페인 기업들이 쿠바 국영 기업과 합작 투자로 니켈 채굴을 중심 운영 중- 니켈 이외에 납, 아연 등도 프랑스, 러시아 등으로 수출을 위한 채굴 진행 중임• (페루) 한국 및 기타 일본·유럽산 가성비 그룹과 중소규모 건설·렌탈 장비숍을 중심으로 한 저가 중국산 제품 경쟁이 치열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멕시코)<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기업 : 정부 주도의 철도·주택 프로젝트에 참여할 입찰 및 파트너십 적극 추진 필요- 해외 기업 : 현지 개발 업체 및 건설사 협력으로 규제·재원 조달 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 (에콰도르) 장비 임대·AS 패키지 제안, 금융 지원·리스 프로그램 연계• (칠레) 소형 수소중장비 수요가 있는 주요 물류 기업 등을 중심으로 중장비와 충전시설을 패키지로 제안• (쿠바) 기계장비 수입을 담당하는 국영 기업 Maquiimport社를 통한 수입 수요 발굴 및 벤더 등록• (페루) AS 및 부품 공급망 지원이 가능한 딜러 발굴이 중요 |

드론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멕시코) 드론 시장은 '23년 3,950만 달러 규모에서 '32년 6억 4,99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35.9%라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임• (칠레) 산업 현장 원격 관리, 광산 내부 탐색, 국경 감시 강화를 위한 드론 수요가 증가• (콜롬비아) 원격 조종 항공기(드론)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 감시 및 마약 생산·유통 모니터링을 통해 군사 안보 강화 필요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멕시코) DJI, Wingtra(글로벌 기업)과 AV3 Aerovisual, BINDEN(현지 기업)이 공존·AI·센서 기반 드론을 활용한 건설 모니터링·국방 응용이 확산 중• (칠레) 최근 칠레 북부 국경 지대, 중국 DJI 제조 무인항공기 21대가 신규 도입되는 등 중국산에 대한 수요 조짐• (콜롬비아) 과거 주요 공급국은 미국이었으나 최근 외교 관계 악화로 대체 공급자 확보 필요 |

진출방안

- (멕시코)
 - 멕시코의 공공 안전·인프라 정책 드론을 고속도로 감시, 건설 현장 관리, 국경 보안의 핵심 자산으로 포지셔닝 필요
 - 정부 기관과의 순찰 프로젝트 협력, 멕시코 치안 환경에 적합한 AI 자율 비행 솔루션 제공, 훈련·정비 프로그램 지원이 중요
 - (칠레) 정부와 산업 현장의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기술적 사양을 부각하는 마케팅 전략을 활용 및 기술 교육 등 병행
 - (콜롬비아) G2G 방식을 통해 첨단 장비 공급 및 교육 및 지원 서비스도 협정 일부로 포함 가능

자동차부품**선정사유**

- (과테말라)
 - 한국산 차량(신차·중고차) 지속적인 수요 증가
 -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애프터마켓 제품 및 자동차 유지관리 부품 수요 동반 성장 중
 - 자동차 부품 FTA 수혜 품목(대부분 15% → 0% 즉시 철폐)
- (멕시코)
 - 북미 자동차 시장의 최대 공급처
 - 멕시코 자동차 부품 산업 규모는 2024년 기준 1,060억 달러로 멕시코 최대의 수출 산업
- (브라질)
 - 자동차 생산 세계 6위, 소비 8위로 중남미 최대
 - 브라질 자동차 생산·소비 증가와 정부의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으로 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
 - (아르헨티나) 내연기관차 보유 기반이 크고, 환율 불안에도 애프터마켓 수요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중고차 시장 규모도 커 지속적 교체 수요가 발생함
 - (에콰도르) 한국-에콰도르 SECA로 수혜, 자동차 관세 40%, 부품 관세 5% 인하 등
 - (쿠바) 국영 기업 렌터카용, 일반 승용으로 한국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관련 수요 큼
- (파나마)
 - 자동차(기아 2위, 현대 3위)와 자동차 부품(수입 5위) 모두 점유율 상위로 한국산 선호 현상 두드러짐
 - 파나마는 중미 최대 자동차 부품 전시회 개최국
 - (페루) 자동차 시장 회복세와 건설업 및 운송업 성장에 따른 트럭, 트랙터, 상업용 차량 판매 증가로 관련 부품 수요도 동반 확대 중

시장동향

- (파나마)
 - '24년 자동차 부품 수입은 하락하였으나 '25년 상반기 들어서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
 - 파나마 바이어들은 중개무역 인프라를 앞세워 인근국까지 수출하는 경우가 많음

-
- | | |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대부분의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며 저가 중국산, 대만산, 멕시코산이 시장 장악• (멕시코) 주요 경쟁국은 캐나다, 일본, 중국으로, 전기·전자 부품, 변속기, 인테리어, 엔진 부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이 수출 견인• (브라질) Tier-1 부품사 45개사 포함 약 500개사 이상 진출• (아르헨티나) 중국산 저가 제품이 점유율을 확대 중, 품질·납기 준수가 가능한 중고가 부품의 수요도 높음. 한국산은 내구성과 품질로 신뢰를 얻을 여지가 있음• (에콰도르) 한국산 일반 승용차 시장 점유율 1위, 한국산 친환경 자동차 상위 4위, 에콰도르-중국 FTA로 저가의 중국산 자동차 수입 증가• (쿠바) 국영 기업(SASA, TRANSTUR)은 자체 보유 차량 유지보수를 위해 일부 수입 중이며 최근 중국 Dong Feng사가 쿠바에 대리점을 개설하며 진출 확대• (파나마)<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자동차 판매 증가에 힘입어 '24년 중국산 부품이 미국을 제치고 수입국 1위 등극- 미국, 일본, 한국 등 자동차 산업 선진국이 상위권 차지• (페루) 중국, 미국, 이탈리아, 브라질산 점유율이 높음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미 전역에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Excel Automotriz, Grupo Q 등)를 집중적으로 공략- 엘살바도르 FTA 발효 이후 관세 0%• (멕시코) 니어쇼어링 이점을 활용한 공급망 관리, 고부가가치 부품 중심의 제조 역량 강화, 산업 단지 내 확장 프로젝트 지원이 핵심 전략• (브라질) 현지 수요가 있으나 내수에서 생산되지 않아 관세 특혜를 주는 관세혜택제도(Ex-tarifario)를 활용하여 제조사 및 Tier-1에 수출• (아르헨티나) 현지 부품 딜러·정비망 협력 강화, 품질·내구성 중심의 마케팅으로 장기적 수요를 선점하는 전략이 유효함• (에콰도르) 자동차협회(AEADE) 회원사 중 자동차 현지 조립 또는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 대상 신규 바이어 발굴 확대• (쿠바) 파나마, 멕시코 등 주변국 에이전트 통한 우회 수출• (파나마)<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전문전에 참가하여 정보 수집 및 대면 상담 실시- 파나마를 중남미 시장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 (페루) 전시회 참가 등 꾸준한 신규 고객 접점 확보 및 기존 고객 관리 |

자동차 배터리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미국·멕시코산은 무관세 품목임에도 한국산이 더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하다는 시장 인식 지배적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MAGNUM(현지), LTH, BOSCH, Interstate, AC Delco, Solite 등 유명 브랜드 각축장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중남미FTA 발효국 우선 진출 - 엘살바도르 관세 즉시 철폐, 온두拉斯 10년간 단계적 철폐, 과테말라 관세율 0% - 중미 전역에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Excel Automotriz, Grupo Q 등)를 집중적으로 공략 |

건강식품 및 음료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한국산 제품 수요 지속 (아르헨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라벨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이 저당·저나트륨·무글루텐 제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음 -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건강·웰빙을 중시하는 경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관련 제품은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칠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무알콜 칵테일(모크테일) 소비 확산 중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중미 모두 생산하며 역내 교역 활발 - PEPSI, AMBEV 등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CBC社가 역내에서는 가장 큰 기업 - 최근 저품질의 알로에 험유량 허위 표기, 한국산 제품과 유사한 라벨을 활용한 중국산, 동남아산 알로에 음료들이 시장을 교란 중 (아르헨티나) Arcor, Molinos 등이 이미 저당·클린라벨 제품 라인을 확대 중, 프리미엄 건강식품 카테고리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함. 유럽·미국산 제품이 주요 수입품으로 자리매김 (칠레) 대형 와인 제조사 Concha y Toro가 무알콜 RTD 제품을 출시하는 등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음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저가 경쟁사 제품 대비 고품질의 제품임을 강조하는 마케팅 진행 필요 (아르헨티나) 온라인몰(Mercado Libre) 및 대형 유통망(Jumbo, Coto 등)에 입점해 '건강·프리미엄' 콘셉트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 (칠레) 트렌디한 한류 이미지를 이용해 미적·기능적으로 차별화된 음료를 개발 및 마케팅하고, '커피 파티' 사례처럼 소비자가 직접 시음하는 이벤트 활용 |

의약품

선정사유

- (과테말라)
 - 높은 빈곤층 비율로 공공보건 분야의 의약품 재고 향시 부족
 - FTA 수혜 품목(5% → 0%, 15년간 단계적 철폐)
 - '23년 11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세계보건기구(WHO) 우수 규제기관 목록 등재에 과테말라 의약품 수출 시 품질인증 생략 가능
- (브라질)
 - 세계 8위 제약 시장으로 중남미 최대 소비 국가
 -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 고령화로 인한 민간 시장 진단·치료 확대로 의약품 수요 증가
- (아르헨티나) 란셋(재혈침), 체외 진단용 시약, 봉합실 등의 필수 소모품 등은 소모성으로 지속적 수요가 발생, 시약·특수 소모품의 국내 생산 기반이 약해 대부분 수입 의존
- (에콰도르) 공공 의료시스템 공급 부족, 수입 의존도 높음, 팬데믹 이후 백신·필수의약품 수요 확대
- (콜롬비아) 처방약품의 국내 생산 능력이 부족,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에 필수. 적시 공급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됨
- (파나마)
 - 고위생국 리스트에 한국 포함, 파나마 정부의 새로운 플레이어 유입 유도 등 연달아 호재 발생
 - (파라과이) 보건 예산 확대, 인구 고령화로 의약품 수요 지속 증가
 - (페루)
 - 보건의료 확대 정책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 의약품 시장 규모 확대
 -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관련 치료제 수요 확대

시장동향

- (파나마)
 - '24년 기준 의약품은 파나마 수입 품목 3위(약 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할 만큼 수입 시장 규모가 큼
 - 많은 수입 업체가 기존 거래선을 고수하려고 하나 정부 정책을 기회로 新 브랜드를 소개하려는 바이어도 증가

- 경쟁동향**
- (과테말라) Bayer, Abbot 등 다국적 제약사를 포함 71개 내외의 의약품 업체가 영업 중, 일부는 현지 생산공장 운영
 - (브라질)
 - 브라질 제약 기업 상위 5개에 브라질 기업이 4개로 브라질 제약사 높은 점유율 유지
 - 현지 기업들 일반 제네릭 생산은 강점을 보이나 특수목적 의약품, 바이오시밀러는 수입에 의존
 - (아르헨티나) 스위스, 독일 등 유럽 국가 제품이 인지도가 높고 봉합실 등은 중국산 제품이 다수 진출해 있음
 - (에콰도르) 인도·콜롬비아·미국 제약사 강세, 현지 제네릭 생산 기업 일부 존재
 - (콜롬비아) 처방약품은 다국적 제약사의 공급 의존도가 높음. 한국산 제품 진출 시 대체 공급원으로서 시장 점유율 확보 가능
 - (파나마)
 - 멕시코나 콜롬비아로부터 제네릭 제품 대량 유입
 - 전문 의약품 분야에서는 독일, 스페인, 미국이 상위
 - 한국은 수입국 39위로 아직 순위가 낮으나 잠재력 충분
 - (파라과이) 글로벌 제약사와 지역 기업 간 경쟁 심화
 - (페루)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와 현지 제조사, 브랜드 의약품과 제네릭(복제) 의약품 간 경쟁 치열
- 진출방안**
- (과테말라)
 - 천연 약재, 소아용 의약품, 항암제, 항생제 등 경쟁력 높은 제품 위주 시장 진출
 - 공공조달 시장의 경우 현지 낙찰 경험이 많은 유력 조달 업체와의 파트너십 중요
 - (브라질)
 - 브라질 정부의 공공입찰, 민관 파트너십(PDP) 정책을 활용하여 시장 진입
 - 단기적으로 현지 제약사를 통한 OEM 전략, 장기적으로 M&A 및 투자 진출을 통한 현지 생산 전략
 - (아르헨티나) 한국의 자유판매증명서(FSC)가 공식 인정, 소모품 등록 절차가 간소화, 기능성과 기술력을 갖춘 소모품(시약 키트, 란셋, 봉합사 등)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 가능
 - (에콰도르) ARCSA 등록·인증 지원 활용, 현지 유통사와 파트너십 체결, KOICA·보건 ODA (공적개발원조) 사업 연계
 - (콜롬비아) 현지 대리점 또는 지사를 통한 유통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물류 및 인증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적시 공급 보장 및 경쟁 우위 확보 가능
 - (파나마) 상기에서 언급한 시장 호재를 바이어에게 적극 강조
 - (파라과이)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DINAVISA) 인증 절차 이행 및 현지 파트너 협력 강화
 - (페루)
 - 항암제, 희귀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등 수요가 높으나 경쟁이 덜한 고부가가치 전문의약품 시장 타겟팅
 - 경험이 풍부한 현지 파트너 발굴·협력을 통해 의약품 등록 절차 가속화 및 의약품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조달 시장 참여 타진

보안장비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현지 치안 불안 상황에 따른 CCTV 등 보안 장비 수요가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꾸준히 발생• (에콰도르) 치안 악화로 인한 관련 제품 수요 증가• (페루) 범죄율 급증과 치안 악화에 따른 사회 불안 가중으로 공공·민간 분야의 보안 제품 수요 증가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현지 저품질의 제품들이나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유통 중• (에콰도르) 경찰, 지방자치단체, 경비업체 등 관련 제품 구매 확대 중이며 미국, 중국 제품이 시장 주도• (페루) 중국, 미국 제품이 시장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산 CCTV도 꾸준히 수출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기술 심사가 요구되는 현지 경찰 등의 정부 관련 입찰 및 KOICA의 현지 치안 강화를 위한 ODA 사업을 통한 현지 프로젝트 레퍼런스 확보 및 관련 입찰 수주 확대 전략 필요• (에콰도르) 경찰,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공급 가능 바이어 발굴• (페루) ICT·네트워크 전문 시공업체와의 파트너링을 통한 프로젝트 단위 정부·민간 입찰 적극 참가 |

건축 자재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주택의 경우 감가상각이 높아 부유층을 위한 신축 건물이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음• (칠레) 급속한 고령화와 시니어 하우징 수요 확산에 따라 안전성과 편의를 보장하는 무장벽 설계와 자재의 필요성이 대두됨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현재 중국산 마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 (칠레)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정부의 공공주택이나 커뮤니티 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해 제안할 여지 있음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가격 대비 품질이 높은 다양한 한국 건설 마감재를 납품할 수 있는 현지 건설사와의 파트너링을 통해 꾸준한 오더 수요 발굴• (칠레) 한국은 실버타운 건설 경험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무장벽 자재를 단품 수출하거나 패키지 솔루션으로 제안 |

철강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현지 수요가 많은 품목으로 우수한 한국 철강 제품 수출 가능성 존재 (에콰도르) 대규모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와 제조업 성장으로 철강 수요 지속 확대 (페루) 인프라 투자 및 공공 건설 프로젝트 확대로 철강 제품 등 건축자재 수요 지속적 증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멕시코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에콰도르) 중국 저가 제품 우위, 브라질·콜롬비아 공급 활발 (페루)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2위 기록 중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직접 수출보다는 온두拉斯, 엘살바도르와 같은 철강을 포함한 한국-중미 FTA 체결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 전략 활용 필요 (에콰도르) 품질·내구성을 강조한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 EPC 프로젝트와 연계, 현지 가공·유통망 구축 (페루) 수요 발생 시 빠른 공급이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작용하므로, 사전에 물류 및 유통망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기회 포착 시 활용

섬유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현지 한인을 포함한 섬유 공장이 많아 관련 원자재 등의 수요 꾸준히 발생 중 (콜롬비아) 의류 제조업의 내수 및 수출 확대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특수 섬유 수요 증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현재 역내 또는 저가의 중국산 원자재 조달 중이며, 섬유기계는 고급 독일제 중심으로 사용 중 (콜롬비아) 중국 및 인도산 저가 제품과 한국, 일본, 미국산 고품질 제품 간 이원화 경쟁이 지속. 품질이 핵심 구매 요인으로 작용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한국 원자재의 단가를 낮추는 물류와 한국산 기능성 원단, 섬유기계의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을 내세운 시장 공략 필요 (콜롬비아) 기능성 스포츠웨어 등 고부가 의류 생산에 적합한 품질 경쟁력을 강조하고, 한국-콜롬비아 FTA 혜택을 부각하여 현지 업체 공략

전력기자재 및 부품

- 선정사유**
- (멕시코) 통신기기·부품 시장은 '24년 약 287억 6,000만 달러 규모로, '34년까지 연평균 3.6% 성장해 약 400억 달러에 이를 전망
 - (브라질)
 - 전력망의 노후화, 전력망이 부족한 북동부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건설 증가로 전력기자재 수요 증가
 - 인프라 총 투자액 중 전력 부문이 40% 이상 차지
 - (아르헨티나) 리튬·가스·석유 등 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산업 인프라 확충이 동시에 진행 중이며, RIGI(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대형 에너지·광물 프로젝트에 투자가 집중
 - (에콰도르) 전력난 대응을 위한 송배전망 보강, 신재생 프로젝트 확대, 노후 기자재 교체 수요
 - (쿠바) 시급한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발전 용량 확보 필요. 한국산 브랜드(현대중공업) 인지도 높음
 - (파라과이) 현지 생산 기반이 취약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 기업에 직접적인 진출 기회 존재
- 경쟁동향**
- (멕시코) 화웨이, 시스코, TP-Link 등 글로벌 브랜드가 주도, 판매 채널은 아마존·메르카도리브레·베스트바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전문 매장을 중심으로 가정용·기업용 모두 판매 중
 - (브라질) 기업 WEG가 전동기 및 스위치기어 등 생산, 고압 변압기, 특수 절연체 등은 수입 의존 비중 높음
 - (아르헨티나) Siemens Energy, IMPSA, Techint 등 글로벌 및 현지 대형 EPC 기업
 - (에콰도르) 미국·중국·브라질 기업 주도, 유럽계 기업의 재생에너지 장비 우위
 - (쿠바) 독일, 중국 기업 우위
 - (파라과이) 글로벌 메이저(Siemens, Hitachi Energy 등)는 초고압 변전 분야를 주도, 중국·브라질산 제품은 가격 민감 품목에서 강세
- 진출방안**
- (멕시코) 원격 근무·멀티미디어 활용·중소기업 네트워크 현대화에 적합한 솔루션을 우선 공략, 고성능 5G 대응 기기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
 - (브라질)
 - 정부 공공조달, Novo PAC 등의 전력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장 진입
 - 주·지방자치단체마다 전력 회사가 다르므로, 다양한 협력사 및 유통망 확보
 - (아르헨티나)
 - 프로젝트 발주 EPC사 및 엔지니어링 기업과의 공급 파트너십 구축이 핵심
 - AI 데이터센터·스마트 그리드 구축 관련 전력청 및 민간 전력사와의 협력 채널 확보 필요
 - (에콰도르) KSP 전력효율 프로젝트, EIIPP 전력 인프라 사업을 통한 협력, 한국산 고효율 기자재 마케팅
 - (쿠바) 발전프로젝트 발주는 쿠바 전력청(UNE, Union Electrica), 기자재 및 부품 수입은 국영 기업인 Energoimport가 담당. 발주 정보 입수를 위해서는 벤더등록을 하여 상시 입찰정보 입수 및 분석 필요
 - (파라과이) 파라과이 전력청(ANDE) 입찰 경험이 있는 현지 EPC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진출 필요

식품

- 선정사유**
- (멕시코) '25~'34년 동안 건강 스낵 시장은 연평균 6.3% 성장할 것으로 전망, 젊은 층과 도시 소비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칠레)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K-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면서 콘텐츠에 등장하는 한국 식품에 대한 칠레 대중의 관심이 함께 높아지는 추세
 - (아르헨티나) 간편식 수요가 꾸준히 증가 중. 젊은 세대와 맞별이 가구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간편식과 한류 영향이 결합되면서 K-라면·즉석 식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 중
 - (에콰도르) 한류·K-푸드 인기, 가공식품·음료 수입 증가, 젊은 소비층 수요 확대
 - (칠레)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K-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면서 콘텐츠에 등장하는 한국 식품에 대한 칠레 대중의 관심이 함께 높아지는 추세
 - (파나마) 한식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라면바, 컵밥 전문점, 디저트 카페 등 매장 유형도 다양화
 - (파라과이) K-팝·K-드라마 영향으로 한식 조리법·맛에 대한 관심 확대
 - (페루) 한류 확산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상승 중, 현지 편의점과 대형 마트 등 주요 로컬 유통채널로 판매망 확대 중
- 시장동향**
- (파나마)
 - 외식업이 발달해 있는데 '24년에는 전년 대비 호텔·레스토랑 부분이 8.8% 성장
 - 학교 인구 덕에 성업 중인 중식당, 프리미엄 이미지를 등에 입은 일식당 등 아시아 식당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경쟁동향

 - (멕시코)
 - Pepsico, Nestle, Mondelez 등 글로벌 대기업이 건강 지향 제품군을 확대하며 주도
 - 다수의 현지 유기농 브랜드가 존재, 시장이 다소 분산된 구조. 이를 통해 혁신적 틈새형 제품을 보유한 신규 진입 기업에게 기회 존재
 -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는 일본·중국산 라면이 이미 유통 중, 한국산 라면은 '한류 프리미엄' 이미지와 매운맛·다양한 레시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
 - (칠레) 대형마트에서는 주로 미국, 일본 제품 판매
 - (에콰도르) 미국·콜롬비아 제품 우위, 일본·멕시코 브랜드도 점유율 확보
 - (파나마)
 - 미국이 수입국 1위이며 코스타리카, 멕시코, 과테말라 등 식습관이 비슷한 인근국 식품 다수 수입 중
 - 한국은 순위가 낮으나('25년 상반기 기준 38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 고려 시 실질 점유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측
 - (파라과이)
 - 라면·스낵 : 일본/중국산+브라질산 아시아 푸드와 가격 경쟁
 - 소스·양념 : 현지·브라질 브랜드의 'K-스타일' 모방 제품 등장
 - (페루) 로컬 기업과 글로벌 기업 경쟁 치열. 스낵·주류 등은 영국, 멕시코, 중국, 이탈리아 등 점유율이 높음

-
- 진출방안**
- (멕시코) 프리미엄·기능성 슈퍼푸드로 포지셔닝해 대형마트와 온라인 채널에서 초기 인지도 확보 후 편의점과 전통 소매 채널로 확장 또는 현지 식문화와의 융합 추진
 - (아르헨티나) 유통망 PB·공동개발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온라인몰·모바일 결제 프로모션을 활용해 젊은 층을 집중적으로 공략
 - (에콰도르) K-Food Festival·대형마트 시식행사 추진, 온라인 플랫폼·편의점 채널 공략, 맞춤형 포장·현지화 제품 개발
 - (칠레) 현지 한국 슈퍼·편의점 체인 등과 협업, 한국 콘텐츠에 등장하는 조리방법(편의점 즉석 조리)대로 제품을 소비하면서 칠레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경험' 자체를 소비할 수 있도록 마케팅
 - (파나마) 중상류층 대상 쇼핑몰이나 슈퍼마켓에 입점 노력
 - (파라과이) K-이벤트 연계(대사관·KOICA·KOTRA 문화행사), K-팝 댄스스쿨과 인플루언서 협업 시식·레시피 챌린지 등을 활용한 인지도 상승 노력 필요
 - (페루)
 - 현지 소비자 선호, 가격 민감도, 유통 구조를 모니터링하고 페루 시장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
 - 한류 콘텐츠, SNS 영상 활용 및 시식 행사 지원을 통한 제품 및 섭취 방법 소개 등 소비자 이질감 해소

방산물자

- 선정사유**
- (콜롬비아) 내전 대응 및 군수 물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탄약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로 수요 존재
 - (페루) 군 현대화, 방위 산업 진흥법 등 산업 육성 정책 강화 추진으로 시장 지속 성장 전망
- 경쟁동향**
- (콜롬비아) 기존 공급국은 미국, 이탈리아 중심이었으나 최근 공급 부족으로 콜롬비아는 가용 국가 전반에서 조달처 모색 중
 - (페루) 전통적으로 미국, 유럽산 제품의 영향력이 커거나, 최근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
- 진출방안**
- (콜롬비아) 한국 화약 제조업체와 콜롬비아 탄약 제조업체를 연계하기 위해 G2G 방식 추진 필요
 - (페루) 현지 방산전시회 참가 및 국내 개최 주요 전시회, 수출상담회에 정부 관계자 초청, 산업 시찰 지원을 통한 K-방산 우수성 홍보

각종 기기(농업 및 산업)

- 선정사유**
- (브라질)
 - 산업용 자동화기기 시장 47억 달러('24년)에서 79억 달러('31년)로 연평균 성장을 7% 전망
 - 정부의 생산설비 투자 촉진(감가상각 가속화 프로그램) 및 디지털 전환(NIB) 정책으로 자동화 기기 수요 증가 전망
 - (콜롬비아) 설탕, 과일, 카카오 등 원료의 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가공기계 수요 지속
 - (쿠바)
 - 식량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농업 생산성 향상 절실
 - 항후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성 제고 위해 노후화된 장비 수리 및 부품 교체, 최신형 농기계 도입 시급
 - (파나마) 인프라 프로젝트, 민간 부동산 건설, 광산, 부두 등 다양한 현장에서 건설장비 필요
 - (파라과이) 파라과이 정부의 소농가 활성화 정책으로 중소형 농기계 수요 확대
- 시장동향**
- (파나마)
 - '24년에는 재고 부담으로 건설장비 수요가 대폭 하락하였으나 '25년 상반기 들어 수입 수요 회복 중
 - 파나마 정부에서는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광산 재개에 대한 기대도 높아져 건설장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경쟁동향**
- (브라질) ABB, Siemens 등의 외국 기업과 WEG 등의 현지 기업이 시장에서 강세
 - (콜롬비아) 독일, 중국 등 유럽산 장비가 주류를 이루며 해외 제조공장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판매 확대
 - (쿠바) 중국,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 (파나마)
 - HS Code 8429 기준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산 비중 높음
 - '25년 상반기, 한국은 수입국 3위로 선진국 중 최상위권
 - (파라과이)
 - 중국산 : 저가 중심, 품질·내구성 한계
 - 브라질·아르헨티나산 : 물류비·공급망 우위로 시장 강세
- 진출방안**
- (브라질)
 - 한국의 강점인 IoT·AI 기반 솔루션을 결합하여 경쟁 기업과 차별성 강화
 - 브라질 내 합작법인(JV) 또는 OEM 조립 시설 확보하여 부품 조달 및 최종 조립 현지화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콜롬비아) 대형 제조업체 및 도매 업체와 직접 접촉해 맞춤형 제안 및 기술 자문 제공, 한국산 제품 품질 및 해외 성공 사례를 강조해 시장 공략 가능
 - (쿠바) 농기계 수입을 전담하는 국영 기업인 Gecomex 그룹 산하 Maquiimport사를 통한 수요 발굴
 - (파나마)
 - 품질, 내구성, 기술 지원, AS 등 비가격 경쟁력 극대화
 - 대형 딜러에 집착하기보다 자사 제품에 집중할 수 있는 건실한 딜러와 중장기 파트너십 구축
 - (파라과이) 현지 딜러 협력 통한 조립·AS 거점 구축으로 신뢰 확보



사이버 보안 솔루션

- 선정사유**
- (멕시코)
 - 사이버 보안 시장은 '25년 27억 6,000만 달러 규모로 예상
 - 보안 서비스 부문이 15억 9,00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5~'30년간 연평균 5.6% 성장해 '30년 36억 3,000만 달러 전망
 - (브라질)
 -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기업·정부 기관의 보안 투자 증가
 - 중남미 해킹·랜섬웨어 피해 상위 국가
 - (아르헨티나) 최근 정부의 '오픈파이낸스'가 제도화되면서 은행-핀테크 간 API 공유가 확대되고 있어 백엔드 보안 솔루션 수요가 증가
 - (파라과이) 범죄 증가와 국경 보안 취약으로 치안·보안 수요 확대
 - (페루) 금융권 디지털 확대와 함께 사이버 위협이 증가 중
- 경쟁동향**
- (멕시코)
 - 시스코, IBM, 마이크로소프트, 팔로알토 네트웍스, 포티넷, 브로드컴, 액센츄어, 부즈앨런해밀턴, F5, 레이시온 등 글로벌 기업이 대규모 고객 계정을 주도하는 구조임
 - 델타 프로텍트, 메타베이스 Q 등 현지 기업들은 중소기업(SME) 대상 맞춤형 관리형 서비스로 차별화하며 틈새를 공략 중
 - (브라질) 미국 기업들이 컨설팅·클라우드 보안 분야 점유
 - (아르헨티나) 핀테크 산업은 아르헨티나 로컬 기업 진출이 많은 분야로 전체 약 79%, 21%는 외국계 핀테크 업체로 구성
 - (파라과이) Prosegur·G4S 등 다국적 기업이 물리보안(경비·현금 수송) 시장 주도
 - (페루)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솔루션 기업 진입 중
-
- 진출방안**
- (멕시코) 신규 진입 기업 : 멕시코 내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한 중소기업 시장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반 관리형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이 효과적
 - (브라질) 온라인 또는 원격 근무 증가 추세를 활용해 보안 교육 및 매니지드 보안 서비스(MSSP) 제공
 - (아르헨티나) 결제·송금·대출 분야에서 Mercado Pago, Uala, MODO 등 대형 핀테크 플랫폼과 협력하여 보안 인증이나 암호화 모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가능
 - (파라과이) 드론·지능형 관제센터·사이버 보안·출입 통제 등 첨단 보안 솔루션을 패키지 서비스 형태로 제공
 - (페루)
 - 최근 수요가 확대되는 금융권, 통신사, 공공기관 대상 보안·분석 맞춤형 솔루션 공급
 - 현지 주요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초기 언어·현지 규제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및 사후관리 체계 확보

통합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 | | |
|-------------|---|
| 선정사유 | • (멕시코) 치안 전략의 핵심을 정보·감시 역량 강화에 두고 있음 |
| 경쟁동향 | • (멕시코) 시장은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현지 통신업체 간 협력으로 형성됨. Thales, Telmex는 멕시코시티 C5 구축에 핵심적 역할 시스코, 지멘스, 센서 전문 기업 등이 주요 기술을 공급함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진입 기업 :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C5 네트워크 확충·현대화에 발맞춰 영상·센서·고급 분석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 - 기존 플랫폼과의 호환성, 대도시 확장성, AI 기반 자동 대응 시스템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통신사 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네트워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디지털 헬스 시스템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디지털 헬스 시장은 '24년 약 16억 달러 규모로 평가 '33년까지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63억 달러('24년)에서 219억 달러('30년)로 연평균 성장률 23% 전망 • (아르헨티나) 고령화와 만성질환 확산, 공공 병원 현대화 수요, 팬데믹 이후 원격진료 확산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원격의료 부문은 스타트업, B2B 플랫폼(MiSalud 등), 인슈어테크, 민관 파트너십 등이 혼재하며 아직 뚜렷한 시장 지배자가 없는 분산적 구조임 • (브라질) 의료기기로 브라질 진출 역사가 오래된 GE, Siemens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 제품과 통합이 가능한 디지털 솔루션 제공 • (아르헨티나) 미국·유럽 기업이 일부 진출했지만 서비스 가격이 높고, 현지 인프라가 부족하여 대중화 속도가 더딘. 한국은 K-메디컬 인지도와 IT 강점을 기반으로 경쟁 가능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진출 기업은 현지 의료기관·보험사와의 파트너십을 우선시하고, 의료 접근 격차 해소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함 •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VISA 인증, 개인정보보호법(LGPD) 등 규제 사전 준비 - EMR(전자의무기록), 진단 솔루션과 같은 반복적 수요가 있는 서비스 중심으로 구독형 모델 도입 • (아르헨티나) 현지 병원·보험사와 연계한 원격진료 플랫폼, 가정용 모바일 헬스 모니터링 서비스, 웨어러블 연동형 건강관리 솔루션 제공이 유망 |

에너지 관리 시스템

- 선정사유**
- (멕시코) '25년 에너지 개혁은 국가의 전력망 통제권을 강화하고, 현대적 인프라·분산 발전·자가 소비·디지털 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전력 전환 및 관리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함
- 경쟁동향**
- (멕시코) 슈나이더 일렉트릭, 버티브, 이튼, GE 베노바 등 글로벌 기업이 공급 및 주도
- 진출방안**
- (멕시코) 신규 진입 기업 : 산업·상업·데이터센터 부문에서 소비 최적화와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는 확장형 솔루션을 제공

식품 프랜차이즈

- 선정사유**
- (과테말라) 교포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국계 프랜차이즈 도입 수요 존재하며, 중미 내 최대 프랜차이즈 시장이며, 외국계 브랜드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방 시장
 - (칠레) 한국 문화 소비가 늘어나면서 K-Food에 대한 수요가 동반 성장 중
 - (파나마) 중남미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고 관광객도 많아 외식업이 발달해 있음
- 시장동향**
- (파나마)
 - '24년, 전년 대비 호텔·레스토랑 부분이 8.8% 성장
 - 패스트푸드 및 카페 체인, 유럽 베이커리, 퓨전 일식, 중국 식당(파나마는 화교가 많음) 등이 고루 영업 중
- 경쟁동향**
- (과테말라) 미국 주요 브랜드(맥도날드, KFC, TACO BELL 등), 현지 자생 브랜드(Pollo Campero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성업 중
 - (칠레) 한국 식당은 칠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업장이 주를 이루며 한국 프랜차이즈는 아직 없는 상황
 - (파나마)
 - 패스트푸드 :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 칼스주니어, KFC, 파파이스, 파파존스 등 미국 업체 대거 진출
 - 카페·베이커리 부분에서는 크리스피 크림, 팀홀튼, 폴(Paul), 스타벅스, 커피빈, 공차 등이 진출해 있어 중남미에서 가장 다양한 다국적 브랜드가 진출해 있음
- 진출방안**
- (과테말라) 현지 한식당들은 비전문가의 한인 대상 식당 중심으로, 현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화된 한식 브랜딩을 통한 마케팅
 - (칠레) 현지 타깃 그룹에 따른 입지 선정, 식자재 조달 방안, SNS 마케팅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파나마)
 - 한국 음식에 관심이 있는 소비층은 '본고장의 맛'을 선호하므로 현지화 못지않게 오리지널리티가 중요
 - 파나마인들은 SNS를 활발히 사용하므로 SNS에서 관심을 끌 만한 화제성(인테리어, 메뉴, 스토리) 확보 필요

에듀테크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최근 중미 정부의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들의 일환으로 소외 지역 대상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고 언어적인 문제로 스페인, 멕시코, 콜롬비아 등 역내 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짐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번역 등 프로젝트는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경쟁력 강화 필요 |

문화 콘텐츠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한류 동호회, 커버댄스 그룹 등이 구성되며 또래 집단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음 (에콰도르) K-드라마·K-영화 등의 문화 콘텐츠 인기로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수요 증가 (쿠바) 한국 문화 동호회 아르코(ArtCor) 회원 1만 명 수준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전통적으로는 동일 언어/문화를 공유하는 중남미, 스페인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지만, Netflix 등을 통해 자막이 제공되는 콘텐츠들은 국경의 벽을 넘는 것이 수월해진 상황 (에콰도르) 미국, 콜롬비아 및 스페인 콘텐츠 강세 (쿠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는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외 콘텐츠 유통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유튜브나 SNS 등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방식 - 대부분 판권 없이 들어온 복제 DVD, CD로 유통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방송사와의 협력을 통한 콘텐츠 유통 외국에서의 방영 이력을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음 - 한류를 기반으로 중남미 맞춤형 교육, 문화 등 콘텐츠 개발(스페인어 더빙/자막 필수) (에콰도르) 한국 문화행사, 한류 전시회 등을 통한 진출 (쿠바) 무료 쇼케이스, 팬 사인회 등의 개최 통해 한국의 문화 역량과 상호협력 의지에 대한 쿠바인들의 이해를 제고 |

스마트시티 솔루션(보안, 교통, 전자정부 등)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아르헨티나) QR 기반 전자지갑 사용이 성인 인구 64%에 달할 정도로 보편화됨. 환율 변동·자금 유동성 불안이 커 실시간 재무관리·리스크 관리 수요가 높음(에콰도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전자정부 등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관심 증가(콜롬비아)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 서비스 개선과 행정 성과 향상이 목표(쿠바) 국가 전반의 IT 경쟁력 강화 및 이를 통한 정부·민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디지털 라이제이션 드라이브(페루) 정부 주도 디지털 전환 정책 하에 공공 부문 디지털 서비스 수요 확대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상거래,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 보유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아르헨티나)<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결제 : Mercado Pago·Uala 등 주도- 기업 재무관리 펀테크 : Bamba, Alivo, Cobro Digital 등, Agendapro(칠레), Blitz(미국), Duemint(칠레) 등의 외국계 기업 플랫폼도 진출해 있음(에콰도르) 미국, 중국, 대만 및 에콰도르 현지 대기업(콜롬비아) 전자정부 경험이 있는 기업이 주요 경쟁자이며, 현지 진출 기업은 입찰 정보 접근에 유리(쿠바)<ul style="list-style-type: none">- 쿠바 정부는 ICT 경쟁력 강화를 국가 주요 과제로 천명- 팬데믹 발생 이후로 네트워크 트래픽이 4배가 상승(페루) 클라우드 컴퓨팅 등은 글로벌 기업 우세, 로컬 중소기업 맞춤형 솔루션은 로컬 IT 기업 우세 등 글로벌 기업과 로컬 기업 모두 활발하게 경쟁 중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아르헨티나) 현지 은행·펀테크와 협력해 백엔드 인프라, 보안 솔루션, 기업 재무관리(EFM) SaaS 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출 가능(에콰도르) KSP, EIPP 사업 등을 활용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추후 본 사업 수주로 연결하는 전략(콜롬비아) 공공기관은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 초기 요구사항 파악과 한국 전자정부 사례 접목을 통한 솔루션 경쟁력 확보 필요(쿠바) 기존 정부 간 협력채널인 KSP를 통해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기존 중남미 프로젝트 레퍼런스가 있는 전자정부 분야의 협력 수요 모색 필요(페루) 한국-페루 디지털 정부협력센터(DGCC), ODA 사업 등에 기반을 둔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잠금(Lock-in) 효과 확보 및 향후 본 프로젝트 발주 연계 방안 모색 |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

- 선정사유**
- (아르헨티나) 브라질과의 무관세 교역과 EV 전환 흐름에 따라 전기차·하이브리드 생산을 확대 중. 충전 인프라와 스마트 모빌리티 관리 서비스 수요가 급증
 - (칠레) 정부 정책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해조 수요가 급증할 전망인 동시에 대다수 그린수소, 그린암모니아 프로젝트가 아직 기초 단계
 - (콜롬비아) 대도시는 정수장 보유, 중견 도시들은 현 정부의 공공 서비스 개선 정책 일환으로 현대화나 신규 건설 추진 중
 - (쿠바) 아바나 및 해변 휴양지 호텔 신축 계속, 노후 주택 대체를 위한 신축 등 건설 투자 지속
 - (파나마) 공항, 항만, 철도, 도로, 교량 등 교통·물류 위주로 파나마 정부의 인프라 개발 의지 다대
 - (파라과이) 폐냐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보건 인프라 개선 추진
 - (페루) 인프라 시장은 지속 성장 중이며, 발주처 역량 미흡(인원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정부 발주 프로젝트 PMO 등 고부가가치 사업 기회 다다
- 시장동향**
- (파나마)
 -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가 걸림돌로 작용
 - 재정 건전성이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산 재개 가능성도 있어 프로젝트 추진 기대감 상승

경쟁동향

 - (칠레) 글로벌 건설사, 엔지니어링사, 칠레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 등이 공존하고 있어 회사의 규모 및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파트너 옵션 존재
 - (아르헨티나) 충전소 인프라는 아직 부족하며, 유럽·중국 기업 중심으로 초기 진입이 이뤄지고 있으나 기술·안정성 면에서 신뢰 문제가 상존
 - (콜롬비아) 대도시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외국 기업이 유리 스페인과 일본 기업은 이전 프로젝트에 참여 사례 존재
 - (쿠바) 호텔업 투자는 쿠바 국영 기업과의 합작회사만 가능. 50%밖에 안 되는 객실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쿠바 정부는 '30년까지 호텔 객실 대폭 확대 드라이브' 중. 스페인, 프랑스의 진출이 있음
 - (파나마)
 - 미국, 유럽 기업들이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주해 왔으며 현재도 철도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음
 - 미국의 對중국 견제로 중국 진출은 주춤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은 발전소, 지하철, LNG 터미널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완공 혹은 건설 중으로 평판 높음
 - (페루) 스페인, 중국, 프랑스,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현지 지사, 페루 로컬 기업 등 경쟁 치열

진출방안

- (아르헨티나) 한국 기업은 배터리·전장 기술을 기반으로 충전 인프라 운영, EV 차량 공유 플랫폼, 차량-배터리 모니터링 서비스 등 부가가치 서비스 진출을 모색 가능
- (칠레) 그린수소 산업은 장기 국가 계획에 따라 급속히 성장할 전망으로, 시장 수요를 지속 관찰하며 선제적 EPC 참여와 국내 도입 연계 추진 필요
- (콜롬비아) 프로젝트는 지방 정부 입찰 또는 다자개발은행(MDB) 지원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방 정부와의 조기 접촉을 통한 향후 사업 정보 확보와 제안서 준비 중요
- (쿠바) 진출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수주와 병행하는 것이 안정적
- (파나마)
 - 공무원들은 현지 상황에 밝은 업체를 선호하므로 스페인어 인력 확보, 시장 특성 파악이 중요
 - 파나마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아낸싱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PPP도 적극 고려
- (파라과이) KOICA를 비롯한 ODA 프로그램 및 다자개발은행 자금을 활용한 파이낸싱 전략이 필요
- (페루) KOTRA, 현지 공관과의 꾸준한 교신을 통해 G2G 등 주요 프로젝트 정보 확인 및 현지 벌주처와의 네트워킹 기회 확보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26년 중남미 지역 KOTRA 주요 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	'26년 파나마 종합 전시회 한국관	3월 10~12일/파나마시티
	Automec 연계 자동차 부품 수출상담회	4월/상파울루
	중남미 방산협의회	4월/산티아고 10월/온라인(잠정)
	칠레 항공우주전시회 한국홍보관 운영	4월 7~12일/산티아고
	멕시코 온오프라인 KAP(자동차 부품) 사업	5월/케레타로
	(개별 참가) 기계 장비 전시회(Expomaq) 한국관	6월/과나후아토
	(단체 참가) 보안전시회(Expo Seguridad) 한국관	6월/멕시코시티
	칠레 광업전시회 한국홍보관 운영	6월/산티아고
	Embraer 수출상담회	하반기/상파울루
	한국-아르헨티나 AI · 스마트테크 파트너십 포럼	7~10월/부에노스아이레스
유망 소비재 진출 지원	'26년 파나마 자동차 부품 전시회 홍보관	8월 12~14일/파나마시티
	AI시티·드론 산업 로드쇼	10월/멕시코시티
	FY 2026 산업박람회(대리 참가)	11월/아순시온
	도미니카공화국 유통망 진입 지원사업	연중/도미니카공화국
	1무역관 1유통망 협력사업	연중/과테말라
	2026 파라과이 보안·치안 시장 핀포인트 지원사업	연중/온라인
	북중남미 통합 자동차 부품 온라인 수출상담회	미정/온라인
	1무역관 1유통망 협력사업	1분기/보고타
	K-뷰티 온라인 수출상담회	3월/온라인
	K-뷰티 팝업스토어 판촉전	4, 11월/멕시코시티
	멕시코시티 한류박람회	5월/멕시코시티
	온라인 유통망 K-뷰티관 입점 지원	5~7월/온라인
	'26년 화장품 전시회 Belleza y Salud 연계 상담 프로그램	2분기/보고타
	Cosmo Beauty 한국 홍보관 운영	7월/리마
	EXPO PARAGUAY 박람회(대리 참가)	7월/아순시온
	2026 Expo Korea	3분기/키토
	IDB K-LAC Business Summit	3분기/미정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유망 소비재 진출 지원	(단체 참가) 뷰티전시회(Expo Beauty) 한국관	11월/멕시코시티
	K-LifeStyle in 도미니카공화국	11월/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K-푸드 시장 진출 지원사업	연중/과테말라
	중남미 유력소비재 지원사업	연중/과테말라
	1무역관 1유통망 사업	연중/산티아고
	바이어·발주처 방한 지원	연중/에콰도르
의료 분야 진출 지원	농식품 수출 다변화 사업	연중/산티아고
	CIOSP 연계 치과 기자재 수출상담회	1월/상파울루
	메디컬코리아 재외공관 협력사업	6~10월/부에노스아이레스
	'26년 의료산업 전시회 Meditech 연계 상담 프로그램	2분기/보고타
	2026 파라과이 의료기기 진출전략 설명회*	2분기/온라인
	2026 Hospitalar 상파울루 의료기기 전시회*	5월 19~22일/상파울루
	Hospitalar 연계 헬스케어 수출상담회	7월/상파울루
	한국-중남미 바이오테크 온라인 파트너십	7~9월/온라인
	의료기기·의약품 수출로드쇼	11월/멕시코시티
	중남미 취업멘토링	3월/온라인
해외 취업 지원	중남미 취업박람회	6월/온라인
	멕시코 인사담당자 세미나	9월/온라인
	'25·'26년 에콰도르 EIPP (경제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착수 보고회	1분기/과야킬
프로젝트	'25·26년 에콰도르 EIPP (경제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최종 보고회	4분기/과야킬
	투자 진출 기업 원팀 협의회(연 3회)	분기별 1회/멕시코시티, 케레타로, 몬테레이 등
	한국-페루 프로젝트 민관 협의체 운영	연중 상시/리마
	페루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운영	연중 상시/리마
	2026 대륙연결도로 주요 도시 타깃팅 지원사업	연중/온·오프라인
	에콰도르 주요 도시 연결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연중/에콰도르
	MDB 차관 프로젝트 발굴·수주 지원	연중/한국
	'25·'26년 전력청 송변전 마스터플랜 수립	연중/아순시온
KSP	'25·'26년 의료장비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방안	연중/아순시온
	한국-쿠바 경제발전경험공유 사업(KSP)	연중/서울, 아바나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KSP	'26년 중남미 소비재 사절단	1분기/보고타
	관할지 수출확대 사업	2분기/콜롬비아, 베네수엘라
	'26년 식품 산업 전시회 ALIMENTEC 연계 사절단	2분기/보고타
	중남미 기계장비 사절단	6월/멕시코시티·몬테레이
	2026 아르헨티나 K-Food 사절단	6월/부에노스아이레스
	중남미 메디컬 무역사절단	7월
	2026 아르헨티나 K-Beauty 사절단	9~10월/부에노스아이레스
	품목별·지역별 무역사절단	연중
무역사절단	중미 3국 FTA 수혜 품목 맞춤형 사업	연중/과테말라, 9월(잠정)/엘살바도르, 10월(잠정)/온두拉斯
FTA	2026 아바나국제박람회 한국홍보관 참가	11월/아바나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과테말라	헌법재판소(CC) 재구성('26~'31년 임기)	상반기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선출	상반기	
도미니카 공화국	중장기 예산 정책 발표	6월말	
	국가 예산 초안 의회 제출	9월말	
	국가 예산 법안 의회 제출	10월	
	국가 예산 승인 및 공포	12월	
브라질	'26년 대통령 선거	10월 4일(1차)	1차 개표 시 50% 미만일 경우
		10월 25일(2차)	2차 투표
칠레	칠레 대통령 취임	3월 11일	선거 '25년 11월 16일
콜롬비아	'26년 국회의원(상·하원) 총선	3월 8일	
	'26년 대통령 1차 선거	5월 31일	
	'26년 대통령 2차 결선투표	6월	
	'26년 상하원 임기 개시	7월	
	정당별 주요 경선 및 내각 인선 발표	7~8월	
	쿠바 공산당 인민권력국가회의 총국민센서스	7·10월 미정	
파라과이	지방·시(市) 및 지역 선거	10월 4일	예비선거 6월 7일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미정)	스페인 개최(대통령 참석 예정)
	OEA 산하, CIMT(미주노동장관회의)	5월	파라과이 개최
페루	총선거	4월 12일	
	대통령 결선 투표	6월 7일	4월 12일 총선에서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실시
파나마	국회 정기회기 (1차)	3~6월	-
	국회 정기회기 (2차)	9~12월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과테말라	과테말라 한국-중미 FTA 가입 비준	상반기	'24년 1월 8일 정식 서명, '26년 초 국회 통과 및 공식 발효 예상
	'26년 예산안 발표	8월	
	'26년 최저임금 발표	12월	
멕시코	USMCA 공식 공동검토	7월 1일	
	멕시코 행정부 '27년 예산안 제출	9~11월	
아르헨티나	'26년 예산안 의회 심의 및 통과	연중	'26년 예산안이 Milei 정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됨 초점 : 재정 균형, 보건·교육 지원 확대 등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발효	상반기	예상
	정부 예산안 발표	9월	
칠레	정부 예산안 최종 공포	11월	
	한국-칠레 FTA 개정 제10차 협상	-	'26년 추진 예상
	칠레-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	'26년 추진 예상
	칠레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	'26년 추진 예상
	미국-콜롬비아 FTA 투자 해석 합의	1월 16일	
콜롬비아	'26년 중기 국가개발계획 발표	2~3월	
	'26년 콜롬비아 세법 개정	미정	
	UAEC CEPA 1단계 완료	미정	
	미주개발은행(IDB)연차 회의	3월 11~14일	파라과이가 호스트로, 48개 회원국 재무 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등 고위 인사들 참여
파라과이	'27년 국회 예산 심의	3분기	-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상회의	7월	제66차 정상 회담
	'27년 정부 예산 발표 및 승인	8~10월	
페루	중남미개발은행(CAF) 중남미 경제 포럼	2월	파나마 개최 예정
	세계 경제자유구역 기구 제12회 총회	7월	파나마 개최 예정
	파나마 '27년 예산안 발표	7월	-
	파나마 운하청(ACP) '27년 예산안 발표	8월	-
	'26년 미주기구(OAS) 제56회 총회	-	파나마 개최 예정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과테말라	AgriTrade 2026	3월	농업 분야 전시회
	High Security Printing 2026	6월	안보·보안 분야 전시회
	FILGUA 2026	7월	독서, 서적 전시회
	Apparel Sourcing Show 2026	8월	섬유 전시회
	FERIA ALIMENTARIA 2026	9월	식품 전시회
	Ferret Expo 2026	11월	철물·건축 자재 분야 전시회
도미니카 공화국	Feria Agropecuaria Nacional (국립 농업 전시회)	3월	
	Bolsa Turistica Del Caribe(국제 관광전시회)	7월	
	Expo Construccion(건설전시회)	8월	
	Feria Internacional del Libro(도서전시회)	8월	
	CamaraHUB(종합전시회)	9월	
	Expo CIBAO(종합전시회)	9월	
	Expo Comercial Asonahores (호텔 분야 종합전시회)	9월	
	La Semana Pymes(중소기업 전시회)	10월	
멕시코	2026 FIFA 월드컵	6월 11일	미국·캐나다 공동 개최
	Expo Manufactura (몬테레이 제조기술 전시회)	2월 3~5일	제조·산업기계
	EXPOMAQ(레온 산업기계 전시회)	6월 2~4일	공작기계·금속가공
	INA Automechanika Mexico (멕시코 자동차 부품 전시회)	7월 8~10일	자동차 부품
	Aero Expo Mexico(멕시코 항공 전시회)	3월 3~5일	항공우주·소재
	FABTECH Mexico(멕시코 금속가공 전시회)	5월 12~14일	금속가공·용접
	Expo Energia(멕시코 에너지 전시회)	4월 21~23일	전력·에너지
	Expo Farma(멕시코 제약 전시회)	4월 1~30일	의료·제약
	Expo Beauty(멕시코 뷰티 전시회)	11월 1~30일	화장품·미용
	Food Tech(멕시코 식품 기술 전시회)	9월 30~10월 1일	식품 원료·첨가제
멕시코	Expo Seguridad México (멕시코 보안 전시회)	6월 2~4일	보안·시큐리티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멕시코	EXPO PACK México(멕시코 포장 전시회)	6월 2~5일	포장·가공
	Medical Expo Guadalajara (멕시코 의료기기 전시회)	6월 8~10일	의료기기
	2026 브라질 상파울루 치의학 전시회(CIOSP)	1월 28~31일	치과 기기·장비 및 재료
	2026 브라질 농업기술 전시회(AGRISHOW)	4월 27일~5월 1일	농업·축산 장비 및 기술
	2026 브라질 보안 (LAAD Security & Defence 2026)	4월 14~16일	방위·보안 산업
	2026 브라질 상파울루 의료기기 전시회 (HOSPITALAR)	5월 19~22일	의료기기·장비
	2026 브라질 상파울루 슈퍼마켓 전시회 (APAS Show)	5월 18~21일	식품 및 슈퍼마켓 기자재
	2026 브라질 상파울루 보안장비 전시회 (EXPOSEC)	6월 1~3일	치안용품, 보안장비
브라질	2026 K-LAC Business Summit	3분기	ICT, 인프라
	자동차 산업 전시회(Automechanika 2026)	4월 8~11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시회
	농축업 전시회(Expo Rural 2026)	7월	아르헨티나 최대 농목축업 전시회
	의료장비 전시회(Expo Medical 2026)	9월	의료장비·소모품 등 전시
	오일 & 가스 전시회(Oil & Gas 2026)	9월	오일&가스 관련 장비 및 자재
	화장품·향수 전시회 (Expo Perfumería y Cosméticactiva 2026)	10월	화장품·위생용품·향수·액 세서리 전시회
	Expomex	5월	자동차 부품
	Seguri Expo	5월	방산·보안 제품
아르헨티나	Expominas	7월	광산 및 건설 중장비
	Expo Korea 2026	9월	한류 전시회
	Automundo	9월	자동차, 서비스
	Expo Dental	9월	치과 용품
	Medicon	9월	의료기기
	ExpoFlor Ecuador	10월	화훼
	Expo Sweet	10월	디저트 및 베이커리
	Ecuador Oil & Power	11월	석유 및 가스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에콰도르	FIDAE 2026	4월 7~12일	중남미 최대 항공우주·방산 전시회(격년)
	Exponor Chile 2026	6월 8~11일	칠레 2대 광업 전시회(격년, 안토파가스타 개최)
	Espacio Food & Service 2026	9월	칠레 최대 식품·HORECA B2B 전시회(매년)
	Expo Mercado Publico	9월	칠레 공공조달 전시회(매년)
	ExpoNaval	12월 1~3일	중남미 최대 해양·조선 전시회(격년, 볼파라이소 개최)
칠레	보고타 국제 도서전(FILBO)	4월 21일~5월 4일	
	INTERZUM BOGOTA(산업 및 가구전)	5월 12~15일	
	국제식품 박람회(ALIMENTEC 2026)	6월 9~12일	
	ANDICOM(IT 통신 박람회)	8월 19~21일	
	EXPOCAMACOL(건설 및 부동산전)	8월 26~29일	
	Agrofuturo(농업 산업 박람회)	9월 4~6일	
	COLOMBIAPLAST(플라스틱 및 포장전)	9월 21~25일	
	ExpoPet(반려동물 박람회)	9월 26~28일	
	보고타 산업 박람회	9월 21~25일	
	Expodefensa 2026(방산 및 안보)	12월 1~3일	
콜롬비아	국제도서전(FIL Cuba)	2월	
	국제건설전(Fecon)	4월	
	관광전시회(FIT Cuba)	5월	
쿠바	INNOVAR FERIA AGROPECUARIA	3월	농업 박람회 (장소 : Alto Paraná)
	EXPO FARMACIENTIFICA	7월	보건산업 박람회
	EXPO PARAGUAY 박람회	7월	파라과이 최대 종합박람회 (산업, 무역, 서비스, 축산업 등)
	EXPO MAQUINA 2026	8월	건축, 건설, 농기계 및 장비 박람회
	제 15회 남미 조류박람회	9월	파라과이 개최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쿠바	FIFPY 2026	9월	프랜차이즈·상업 박람회
	EXPO MAQUILA 2026	9월	마킬라 기업상공회의소(CEMAP) 및 산업경제인협회(UIP) 주최
	CADAM MOTOR SHOW	10월	자동차 박람회
파라과이	Expomecanica(기계 및 자동차 부품 전시회)	5월 29~31일	
	Expomina(광업 전시회)	9월 9~11일	
	Cosmo Beauty(뷰티 전시회)	7월	잠정
	Tecno Salud(바이오·의료 부문 전시회)	9월 10~12일	잠정
	Expoalimentaria(식품 전시회)	9월 23~25일	
	Excon(건설 전시회)	10월	잠정
	Sitdrone Air&Space(항공우주·방산 전시회)	11월	잠정
페루	2025 파나마 종합전시회(Expocomer)	3월 10~12일	
	2026 파나마 자동차부품·타이어 전시회 (Latin Autoparts & Tyre Expo)	8월 12~14일	
	2026 파나마 커피 전시회	10월 23~25일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최세령	차장	중남미	(52-55) 5514-3173 (702)	srchoi@kotra.or.kr
2	김재훈	Specialist	지역본부	(52-55) 5514-3173 (710)	jaehunkim@kotra.or.kr



2026 중남미 진출전략



ISBN: 979-11-402-1469-3 (93320)
979-11-402-1470-9 (95320) [PDF]